

제주4·3사건 관련 행형자료와 형무소 재소자*

- 서대문·마포·광주형무소를 중심으로 -

박찬식**

< 차례 >

- I. 머리말
- II. 4·3 행형자료 해제
- III. 행형자료를 통해 본 서대문·마포형무소 재소자
- IV. 판결문을 통해 본 광주형무소 재소자
- V.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지금까지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행형자료에 관한 조사 결과물이다. 행형자료는 판결문 등 재판 관련 자료와 교도소의 수형자료 등 각 검찰기관과 교정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말한다. 특히 해방직후 일어났던 대표적인 대중투쟁 사례인 9월 총파업, 10월 사건, 3·1기념식 사건, 2·7사건, 4·3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 소장 1,670여 건의 4·3 관련 행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초적으로 정리한 성과물이다. 우선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목포형무소에 이어 이번에는 서대문·마포·광주형무소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53-A00012).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복역자의 실상을 파악하여 보았다. 서대문·마포형무소에 수감된 4·3관련 재소자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탈옥수명부』를 검토한 결과, 전주형무소의 여성 수형인들이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 언도된 4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광주형무소 복역자의 실상도 광주지법 재판에 회부된 4·3관련자 15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많은 행방불명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역량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미확인 4·3 행방불명인에 대한 추가 조사, 다른 지역 대중투쟁 관련 수형인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판결문 자료를 통해 대중투쟁의 구체적인 실상, 투쟁 지도부와 참여층에 대한 분석, 당시 사회상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주제어 : 제주4·3사건,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행형자료, 수형인명부, 탈옥수명부, 판결문, 행방불명인, 서대문형무소, 마포형무소, 광주형무소, 대중투쟁.

1. 머리말

이 글은 지금까지 제주4·3사건(이하 '4·3'으로 약칭)의 연구 자료로 거의 활용되지 않아왔던 행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조사·정리·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행형자료는 1895년 근대 재판제도가 도입된 후 작성된 근대 판결문에서부터 현재 각 검찰기관과 교정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말한다. 이들 자료는 피의자 수사 및 내사 기록, 재판회부 기록, 판결문, 형집행 기록, 수형인 기록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1946년 이후 검찰청 및 교도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일괄 보관되고 있다. 행형자료 중에서도 대검찰청을 비롯하여 서울·대구·광주의 3개 고등검찰청, 13개의 지방검찰청, 35개의 지청에서 생산

되고 있는 기록이 더욱 중시된다. 이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내용이 충실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한 개인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처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상·사대상이 실려 있다는 것도 검찰기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유가 된다.

지금까지 한국현대사는 주로 외국에서 작성한 문서를 주요자료로 삼아 연구되거나, 국내에서 발간된 책자나 신문류를 근거 자료로 하여 기술되어 왔다. 최근에 현장 인터뷰를 통해 축적된 구술자료를 토대로 연구하는 성과도 늘어나고 있다. 책자나 신문류·구술자료 등은 물론 현대사 규명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정책의 흐름이나 정부 운영 방식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산한 공식 기록물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기록 중에서도 행정자료는 정부가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자를 다룬 기록이기 때문에 국가권력과 국민대중 사이의 역학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는 사회사 연구에 행정기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진척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역사연구 방법론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규정 때문에 행정기록물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자료 이용의 제약 상황은 해방 이후 현대사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해방 직후 지역별로 다양하고도 격렬하게 전개된 대중투쟁 사례들을 연구하는 데 행정자료는 가장 중요한 1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¹⁾

1) 해방 이후 대표적인 대중투쟁 사례인 9월 총파업, 10월 사건, 3·1기념식 사건, 2·7 사건, 여순사건 등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들이 있지만, 행정자료는 거의 활용되지

반면 4·3의 경우 국무총리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2000년 발족한 이래 2001년 4월부터 2개월간 전담팀이 국가기록원 소장 4·3 관련 행형자료를 별도로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판결문원본·재소자인명부·수형인명부·수용자신분장 등 총 1,670여 건의 행형자료를 입수하여 정리하게 되었다. 그 자료 중 일부는 2003년 10월 확정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4·3보고서』)의 작성에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의 피해 실태를 밝히는 데 치중한 나머지 4·3 당시 무장봉기와 항쟁 주도세력의 판결문을 비롯한 관련 행형자료는 거의 취급되지 못하였다. 방대한 자료에 대한 수집만 해놓았지 정리와 분석은 진상조사보고서 이후의 과제로 남겨놓았던 것이다.

결국 4·3 관련 행형자료의 본격적인 조사·연구의 과제는 4·3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미진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4·3으로 인한 형무소 재소자 행방불명인 진상조사는 대표적인 행형자료를 활용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취지에 맞추어 지금까지 규명이 미진한 광주형무소와 서울지역의 서대문·마포형무소 재소자의 행방에 관해 행형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물이다. 『4·3보고서』를 통해 각 지역별 형무소 재소자들의 행방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산형무소·대구형무소 등 형무소 재소자의 6·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행방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은 밝혀졌다.²⁾ 그러나 행형자료 및 증언에 근거하여 개괄

못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소장 행형자료가 9월 총파업 30건, 10월 사건 83건, 3·1기념식 사건 72건, 2·7사건 450건, 5·10선거 거부 사건 452건, 여순사건 369건 등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들 자료가 본격적으로 정리·분석된 바는 없다(시귀선(2000),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해방 이후 행형기록의 내용과 활용방안」, 『역사연구』 7).

적인 사실 및 정황을 밝혀낸 정도에 그쳐서 세부적인 개별 조사까지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필자는 목포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을 조사·연구한 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박찬식, 2007). 그러나 서울 지역 형무소와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4·3수형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서대문·마포형무소와 인천형무소에 수감된 4·3관련 재소자들은 만기, (의병) 형집행정지, 감형 등의 조치로 출소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북한 인민군이 서울·인천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출옥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향 제주도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용군에 편입되어 전장에 투입되거나 전쟁 과정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분단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들의 행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4·3 희생자 신고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이들은 철저히 관심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냉전체제의 질곡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언급조차 기피되어 왔다. 이 글을 통해 이들의 형무소 재소 상황과 행방을 각종 자료에 의거해서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행형자료 가운데 주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이하 『수형인명부』)³⁾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부산·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서를 확정된 바 있다(『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9.2.2;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10.6.29).

3) 이 명부의 원본 표지에는 “단기 4281년 12월·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 수형인명부, 제주지방검찰청”이란 글자가 적혀 있다. 이 명부는 원래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었지만, 원래 작성 주체는 제주도계엄지구사령부(사령관 육군중령 함병선)와 수도경비사령부 보병 제2연대(연대장 육군대령 함병선)였다. 『수형인명부』에는 위 계엄지구사령부 사령관과 제2연대장의 직인이 찍힌 고등군법회의 명령이 들어

를 기본 자료로 삼아서 최근 새로이 입수한 『6·25당시 탈옥수명부』(이하 『탈옥수명부』)⁴⁾에 기재된 4·3연루자를 검색하여 한국전쟁 직후 형무소 출옥자들의 기본 신상을 밝혀내고자 했다. 나아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죽음과 월북을 면해 고향으로 돌아온 수형생존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실행함으로써 형무소 수감 경위, 재소 생활, 전쟁 발발 직후 출옥과 귀향 경위 등을 파악하였다. ‘4·3위원회’에 접수된 형무소 수형행불인 유가족의 신고 내용도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전쟁 직후 상황을 취재한 북한 중군기자들의 신문 기사 등 당시 상황을 소개한 문헌자료도 적극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4·3관련 재소자들은 주로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치러진 4·3관련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언도받은 수형인들이었다. 군법회의 수형인들이 수감되었던 다른 지역의 형무소와는 달리 광주형무소에는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수감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군법회의 수형인 및 여러 지역의 형무소 재소자에 관한 행형자료는 『수형인명부』, 『탈옥수명부』, 『재소자명부』, 『좌익출소자명부』 등 다양하게 남아있으나, 유독 광주형무소에 관한 행형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이 광주형무소 관련 4·3수형인의 실상을 파악하

있고, 군법회의의 피고인 명부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수형인명부」는 제주지방검찰청에 보관 중이었다가 1976년 10월 15일 구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되었다. 1999년 9월 15일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국회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로부터 공식 입수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4)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1951년 법무부 검찰과에서 작성한 명부로서, 서울(서대문)형무소·마포형무소·목포형무소 등에서 전쟁 발발 직후 없어진 재소자를 형무소 복구 과정에서 조사·기록한 자료이다. ‘탈옥수’라고는 하였지만, 이들이 자발적 탈옥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서대문·마포형무소 재소자는 인민군에 의해 옥문이 열려 석방된 것이고, 목포형무소 명부는 1949년 탈옥사건 연루자가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 행방불명된 사람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각종 증언과 희생자 신고 내용을 통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관련자들의 흔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광주형무소 재소자의 대부분은 광주지방법원에 치러진 일반재판 수형인임이 여러 유가족들의 전언을 통해 확인된다. 다행히 국가기록원에는 4·3관련 일반재판 판결문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 이 판결문을 통해 광주지법 재판에 회부된 4·3관련자 2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이들 광주지법에서 재판 받은 4·3수형인과 광주형무소 수감과의 연관 사실을 밝혀내고 한국전쟁 직후 이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행해진 4·3관련 재판의 실상을 확인하고 4·3과 6·25전쟁 전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은 아직까지 채 밝혀지지 못한 4·3의 실상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⁵⁾

또한 이 글은 한국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축적된 새로운 자료의 정리 및 해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글이 행형자료를 근거로 한 지역대중투쟁과 민간인 집단희생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시범적인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우선 행형자료에 대한 정리를 통해 형무소 수형인의 행방을 찾는 기초작업을 수행한 뒤 행형자료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의 후속작업을 위해서 이 글에서 4·3 행형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 내용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5) 이번 실태 조사를 위해 국가기록원 소장 4·3관련 광주지법 판결문(200여명 분)을 정리·분석하였다. 그리고 광주형무소 수형생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면담 조사,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4·3위원회'에 접수된 형무소 수형행불인 유가족의 신고 내용도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전쟁 직후 상황을 취재한 북한 중군기자들의 신문 기사 등 당시 상황을 소개한 문헌자료도 적극 활용하였다.

II. 4·3 행형자료 해제

4·3 행형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해방 직후로부터 4·3의 종결 시점인 1954년까지 10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중점 조사 대상 시기는 주로 대중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47년 3·1사건 때로부터 6·25전쟁 직후 형무소 재소자들이 행방불명된 시기까지가 될 것이다.

또한 공간적 범위는 해방 이후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대중투쟁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 전역의 사건 및 개인·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수형인들 가운데는 제주지방법원의 사정 때문에 광주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제주지역에 형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수형인들이 내륙지방의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되는 공간은 주로 제주지역이 되겠지만, 행형자료를 주로 다루는 본 연구의 성격상 전국적으로 공간의 범위를 넓혀서 4·3 수형인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조사 대상으로 삼는 4·3 행형자료는 대부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것이다. 이들 자료의 수집은 4·3진상규명 위원회가 2001년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별도로 조사한 것으로서, 판결문원본·재소자인명부·수형인명부·수용자신분장 등 1,670여 건에 달한다. 구체적인 행형자료의 내역은 이 글 뒤에 부록으로 수록하여 놓았다.

〈수집 자료 건수 및 전체 목록〉

- 제주지검·광주지검·대구고검이 관리해 온 판결문원본 1,562건
- 제주지검 수형인명부/형사사건부/집행원부 등 46건
- 전국 각 교도소 재소자인명부/종결신분장보존부/만기력부/수용자신분장 등 60건

이들 행형자료를 대상으로 기록물의 생산연대, 생산기관, 사건명, 사건번호, 인명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 기록물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각 자료별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였다. 각 자료의 내용 및 성격을 분석하여 자료를 개개 사건별, 연도별, 지역별, 인명별, 형무소별 등으로 별도의 파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예컨대 수형인 한 사람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성명/연령/본적지/거주지/판결/연도일자/복형장소/형기/징역시기/
형무소변동/형기만료시기 등

행형자료는 크게 재판 관련 자료와 교도소 수형자료로 구별되는데, 교도소 자료는 주로 명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교도소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의 문서를 단위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명부를 통해서는 4·3 관련자 명단을 빠짐없이 추출해서 D/B 입력 작업을 하였다.

형사판결문과 약식명령은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며 어떤 자료에도 남아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지역대중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활동 내용 등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당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던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은 당시에 운용되던 법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나타난 범죄 사실은 범죄인의 단순한 신상기록이 아니라 권력과 체제 등의 역학관계 등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인의 삶의 양상이나 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고문을 통한 허위 진술, 조직 보안을 위한 의도적 은폐, 일률적 틀로 짜여진 심문조서가 대본이 된다는 사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사건 연관자의 경력, 사건 참여 경위, 활동 사항, 인적인 연결망, 적용 법률 등 기본 사실을 소상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문 자료는 주도세력의 범위를 몇몇에 불과한 전체 지도부 중심에서 읍·면 마을과 직장 단위의 활동가로 확장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4·3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좀 더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1,562건의 판결문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개별 단위로 정리·입력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D/B 입력 작업을 하였다.

〈일반재판 판결문 개요〉

- 담당 법원: 제주지법, 광주지법, 대구고법, 대법원
- 수형인 총 수: 1,562명
- 4·3붕기 이전 시기(1947.3.1~1948.4.3): 480명
 - 벌금형(징역형과 미병합: 벌금형만 내린 경우): 248명
 - 실형/집행유예: 150명
 - 실형(금고 및 징역형): 82명
- 4·3붕기 이후 시기(1948.4.3~1954.9.21): 1,082명
 - 벌금형(징역형과 미병합: 벌금형만 내린 경우): 250명
 - 실형/집행유예: 351명
 - 실형(금고 및 징역형): 481명
- ※ 사형: 1명, 무기형: 1명, 징역15년형: 1명, 징역10년형: 4명, 징역8년형: 2명, 징역7년형: 10명, 징역6년형: 1명, 징역5년형: 15명

또한 주문·이유·범죄사실·증거·적용법조 등 판결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함으로써 피의자의 과거 행적, 법적 처리 등에 대한 정보

를 학술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판결문 정리는 내용 전체를 해독하여 한글 파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판결문 '理由'와 관련 법 적용('適用 法條') 부분은 별도로 요약 정리하였다. 판결문 전체 내용을 담은 파일과 요약 내용을 담은 파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놓았다.

4·3의 기점이 되었던 1947년 3월 1일로부터 1948년 4월 3일을 거쳐 1954년까지 4·3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하였다. 4·3 관련 재판으로는 제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대법원 등에서 치러진 일반재판과 미군정 당시 행해진 군정재판,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 등이 있었다. 또한 1948년 12월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 군법회의와 1949년 7월 예외적으로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가 있었다.

4·3 관련 재판을 받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벌금형·구류·집행유예 등을 언도 받았지만, 금고·징역 등의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이들 형무소 재소자들은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도 하였지만, 열악한 형무소 수감 환경 때문에 옥사하기도 하였고, 상당수가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불순분자를 처분하라는 상부 명령에 따라 총살당하였다.

Ⅲ. 행형자료를 통해 본 서대문·마포형무소 재소자

4·3 당시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여러 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실시되었음(이하 '1948년 군법회의', '1949년 군법회의'로

칭함)을 보여주는 문서가 남아 있다. 즉,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수형인명부』로서, 여기에는 군법회의의 관련 명령서 및 군법회의에 회부된 2,530명(1948년 군법회의분 871명, 1949년 군법회의분 1,659명)의 피고인 명부가 별첨되어 있다. 명령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죄과, 범죄사실),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인쇄되어 있다. 별첨 피고인명부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항변·판정·판결 항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항목 등으로 나누어져서 표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사형수들의 명단도 따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 군법회의의 대상자들은 서울·인천·대전·대구·전주·목포 등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어 재소자 생활을 하였다.⁶⁾

이들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각 형무소별로 불순분자 처리 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총살 처리되었다. 일부는 옥문이 열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행방불명됨으로써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다.

1) 서울지역 형무소 수형인의 유형

(1) '1948년 군법회의'를 거친 서울지역 형무소 수형인

문서상 '1948년 군법회의'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39명(4.4%), 무기징역 67명(7.7%)이었고, 나머지는 징역 20년 97명(11.1%), 징역 15년 262명(30.0%), 징역 5년 222명(25.5%), 징역 3년 4명(0.5%), 징역 1년 180명(20.7%) 등이다.

『수형인명부』에 적혀진 871명의 군법회의의 대상자들은 제주도에서 사

6) 『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4·3 당시 군법회의의 수형인을 분석한 글은 다음 논문이 참고할 만하다. 박찬식(2001),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창간호.

형에 처해진 38명을 제외하고 각각 목포·마포·서대문·대구·인천·전주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무기징역 67명은 『수형인명부』에 복형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형무소 수감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4명은 『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에 1949년 3월 4일 대구형무소에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들 67명은 목포형무소에 2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대구형무소와 기타 형무소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무기수 중 여성 수형인들은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음이 확인된다.⁷⁾

징역 20년으로 적혀 있는 97명 역시 『수형인명부』에 복형장소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1949년도 마포형무소 재소자명부』를 보면 이들 대부분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징역 15년형에 처해져 목포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수형인 가운데 일부가 마포형무소로 이송되었다(뒤의 마포형무소 탈옥수명단 참조).

여성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징역 15년 3명, 징역 5년 7명, 징역 1년 38명 등 총 48명이다. 이들 가운데 징역 1년 수형인 48명은 형기가 만료된 뒤 석방되었지만, 장기수 10명은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뒤의 증언록에서 보듯이 징역 20년형에 처해진 강순현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1950년 한국전쟁을 앞두고 ‘1948년 군법회의’로 서울지역의 서대문·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수형인은 서대문형무소에 10명 내외(주로 여성 수형인), 마포형무소에 120명 내외(징역 20년형 97명, 징

7) 『탈옥수명부』에서 강우선·강춘화 등 2명이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이었음이 확인된다.

8) 『탈옥수명부』에서 징역 15년형의 김화윤·안수열, 징역 5년형의 고옥순·김임생·정순봉·이덕순 등이 확인된다.

역 15년형 20여 명, 기타) 정도로 파악된다.

(2) '1949년 군법회의'를 거친 서울지역 형무소 수형인

『수형인명부』의 '1949년 군법회의' 대상자 1,659명 가운데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345명(20.8%), 무기징역 238명(14.3%)이었고, 나머지는 징역 15년 308명(18.6%), 징역 7년 706명(42.6%), 징역 5년 13명, 징역 3년 25명, 징역 1년 22명, 미확인 2명 등이다. 대체로 계엄령 하의 '1948년 군법회의'보다 더욱 강경한 처리를 했다.

사형으로 기록된 345명 중 249명이 총살되었는데, 나머지는 고등군법회의 설치장관의 확인 과정이나 재심의 과정에서 감형되어 죽음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듯이 이들 무기형으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수형인 상당수가 『탈옥수명부』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사형으로 기록된 강두삼·부을생·김남해·허남홍·김태경·강원기·홍천표·양경택·부성우 등은 마포형무소에 무기징역수로 재소 중임이 확인되기도 한다.⁹⁾ 마찬가지로 사형으로 기재된 김민학은 마포형무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고향에 와서 살다가 20여 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제주4·3연구소, 1989: 47-48쪽).

『수형인명부』에 적혀진 1,659명의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제주도에서 사살된 249명을 제외하고 각각 마포·대구·대전·목포·인천·전주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수형인명부』에 복형 장소가 마포형무소로 기재된 사람은 223명으로서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또한 양성환·김기임·김택수·문두찬·채고배 등은 징역 15년형을 받은 20여 명은 목

9) 『1950년도 마포형무소 재소자명부』와 『마포형무소 수용자신분장』 등에 이들 재소자 명단이 확인된다.

포형무소에서 대구형무소를 거쳐 마포형무소로 이송되어 왔다.¹⁰⁾ 여기에다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로 이송된 사람이 96명이므로, 마포형무소 재소자는 총 350여 명이었다.

여성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무기징역 3명, 징역 7년 21명, 징역 5년 13명, 징역 3년 25명, 징역 1년 22명 등 총 84명이다.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여성 수형인들은 수감 한 달 만에 대부분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다.¹¹⁾

그러므로 1950년 한국전쟁을 앞두고 ‘1949년 군법회의’로 서울지역의 서대문·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수형인은 서대문형무소에 80명 내외(주로 여성 수형인), 마포형무소에 350명 내외(무기형 223명,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 수형인 96명, 기타) 정도로 파악된다.

2) 한국전쟁 직후 형무소 수형인의 행방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6월 25일 당일 오후 2시 25분 치안국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전화통신문으로 긴급 하달하였다.¹²⁾ 그러나 정부는 서울·

10) 뒤의 『탈옥수명부』에 18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이들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한국전쟁 직후 대구형무소에 복역 중이었다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마포형무소 재소자임이 확인된 것이다. 참고로 대구형무소를 거쳐간 수형인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 6·25 때 대구형무소에서 희생 ② 대구→부산형무소 이송, 희생 ③ 대구→부산→마산형무소 이송, 희생 또는 생존 ④ 대구→마포형무소 이송, 출옥 또는 행방 ⑤ 대구형무소에서 행방).

11) 뒤의 『탈옥수명부』 참조. 또한 『서대문형무소 재소자명부』(국가기록원 소장)에 이재욱·이정숙·이정생 등의 명단이 확인된다. 허두현은 전주형무소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직접 이송 광경을 목격하였다. 許斗憲(72세, 제주시 도남동, 당시 학생, 2000.12.13. 채록) 증언.

12) 「4·3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제주KBS 다큐멘터리), 2000.3.30. 방영.

인천 등 형무소 재소자에 대해서는 경비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 남쪽으로 도피하였다. 반면 정부와 국군의 남하 과정에서 경기도 평택 이남 지역의 형무소 재소자들은 집단 총살의 대상이 되었다.

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 재소자는 37,335명이었고, 이 중 서대문 형무소에 8,782명(미결수 6,200명 제외), 마포형무소에 3,315명, 부천·영등포·춘천·개성·인천형무소에 17,106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평택 이남의 형무소 재소자는 20,229명이었다.¹³⁾ 제주에서 이송된 4·3사건 관련 재소자는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 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출소한 사람¹⁴⁾을 제외한 2,350여 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2,500여 명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1) 서대문형무소 수형인의 행방

서울의 서대문·마포형무소와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북한 인민군이 형무소를 장악함에 따라 출소하여 각지로 흩어졌다.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여성 수형인 70여 명은 8월 18일 중앙여맹이 주도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지지 서명 꺾기대회’에 참석하였다.¹⁵⁾ 『탈옥수명부』에서 확인되는 이들의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13) 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관1년지』, 1951(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1999에서 재인용).

14) ‘1948년 군법회의’ 대상 가운데 징역 1년형은 목포형무소 90명, 인천형무소 52명, 전주형무소 38명 등 총 180명이었다.

15) 『조선인민보』, 1950년 8월 20일.

〈표 1〉 『탈옥수명부』에 수록된 서대문형무소 복역자 명단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 여부	신뢰도
1	무직	강우순(姜宇順)	38	북군 애월면 애월리	무기	1948-12-04	○	△
2	무직	강춘화(姜春花)	44	북군 애월면 애월리	무기	1948-12-27	○	△
3	무	김화윤(金貨潤)	19	북군 애월면 애월리	징역15년	1948-12-05	×	
4	무	안수열(安守烈)	20	북군 애월면 애월리	징역15년	1948-12-05	×	
5	간호원	고옥순(高玉順)	18	북군 제주읍 봉개리	징역 5년	1948-12-13	×	
6	농(업)	김임생(金任生)	27	남군 남원면 신흥리	징역 5년	1948-12-26	×	
7	농(업)	정순봉(鄭順奉)	52	북군 제주읍 도두리	징역 5년	1948-12-27	×	
8	농(업)	이덕순(李德順)	19	북군 제주읍 노형리	징역 5년	1948-12-27	○	△
9	무직	이정숙(李貞淑)	34	북군 제주읍 삼도리	사형	1949-06-29	×	
10	무(직)	김진원(金鎭元)	40	북군 조천면 북촌리	무기	1949-07-01	×	
11	농(업)	장규인(姜奎仁)	20	북군 애월면 어도리	무기	1949-07-01	×	
12	농(업)	이재옥(李在玉)	41	북군 조천면 조천리	무기	1949-07-01	×	
13	농(업)	김배선(金梅先)	21	남군 서귀면 서흥리	징역 7년	1949-07-07	○	×
14	농(업)	강정열(姜貞烈)	20	북군 애월면 어도리	징역 7년	1949-07-07	○	△
15	농(업)	변계화(邊桂花)	20	남군 서귀면 서흥리	징역 7년	1949-07-07	○	△
16	농(업)	한송섭(韓松燮)	32	북군 조천면 함덕리	징역 7년	1949-07-07	×	
17	무(직)	이윤경(李允貞)	26	북군 조천면 조천리	징역 7년	1949-07-07	×	
18	농(업)	김진주(金眞珠)	25	남군 대정면 인성리	징역 7년	1949-07-07	○	○
19	농(업)	윤옥례(尹玉禮)	30	북군 조천면 북촌리	징역 7년	1949-07-07	×	
20	농(업)	김숙(金淑)	24	북군 제주읍 이호리	징역 7년	1949-07-07	○	△
21	농(업)	김신생(金辛生)	42	북군 제주읍 이호리	징역 7년	1949-07-07	○	△
22	농(업)	이인현(李仁賢)	41	북군 조천면 조천리	징역 7년	1949-07-07	○	○
23	농(업)	양진옥(梁珍玉)	18	북군 제주읍 노형리	징역 7년	1949-07-07	×	
24	농(업)	양청심(梁淸心)	24	북군 제주읍 아라리	징역 7년	1949-07-07	○	△
25	농(업)	강갑선(康甲先)	16	남군 표선면 가시리	징역 7년	1949-07-07	○	△
26	농(업)	김영심(金榮心)	25	북군 제주읍 이호리	징역 7년	1949-07-07	○	△
27	농(업)	안방운(安芳雲)	21	북군 제주읍 화북리	징역 7년	1949-07-07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여부	신리도
28	농(업)	강계옥(姜桂玉)	27	북군 제주읍 월평리	징역 7년	1949-07-07	○	○
29	농(업)	이정숙(李貞淑)	21	북군 제주읍 화북리	징역 7년	1949-07-07	○	△
30	농(업)	강어생(姜於生)	39	북군 한림면 금악리	징역 5년	1949-07-07	○	△
31	농(업)	오기념(吳基念)	42	북군 제주읍 연동리	징역 5년	1949-07-07	×	
32	농(업)	강정수(姜貞洙)	41	북군 제주읍 노형리	징역 5년	1949-07-07	×	
33	농(업)	양오송(梁午松)	44	북군 애월면 팍지리	징역 5년	1949-07-07	○	△
34	농(업)	신순옥(申順玉)	20	북군 제주읍 월평리	징역 5년	1949-07-07	○	△
35	농(업)	강임화(康壬化)	37	남군 표선면 가시리	징역 5년	1949-07-07	○	△
36	농(업)	이근숙(李根淑)	18	북군 애월면 금덕리	징역 5년	1949-07-07	○	△
37	농(업)	홍옥례(洪玉禮)	20	북군 초천면 선홍리	징역 5년	1949-07-07	×	
38	농(업)	이춘녀(李春女)	20	북군 애월면 상귀리	징역 5년	1949-07-07	○	△
39	농(업)	김대길(金大吉)	29	남군 표선면 북산리	징역 5년	1949-07-07	×	
40	농(업)	고산월(高山月)	32	북군 제주읍 이호리	징역 5년	1949-07-07	○	△
41	농(업)	고일순(高日順)	18	북군 제주읍 해안리	징역 3년	1949-07-07	×	
42	농(업)	강도원(康桃源)	41	북군 애월면 하귀리	징역 3년	1949-07-07	×	
43	무(직)	이정생(李丁生)	18	북군 제주읍 노형리	징역 3년	1949-07-07	×	
44	농(업)	김해월(金海月)	17	남군 남원면 한남리	징역 3년	1949-07-07	×	
45	농(업)	강희선(姜喜善)	18	북군 애월면 하귀리	징역 3년	1949-07-07	○	△
46	농(업)	안선화(安善花)	19	북군 제주읍 삼도리	징역 3년	1949-07-07	×	
47	농(업)	안술생(安述生)	21	북군 제주읍 아라리	징역 3년	1949-07-07	×	
48	농(업)	송정생(宋丁生)	22	남군 표선면 가시리	징역 3년	1949-07-07	○	△
49	농(업)	안춘생(安春生)	26	남군 표선면 가시리	징역 3년	1949-07-07	○	△
50	농(업)	김기생(金己生)	34	남군 남원면 신흥리	징역 3년	1949-07-07	○	△
51	농(업)	김일규(金日奎)	23	북군 제주읍 노형리	징역 3년	1949-07-07	○	△
52	농(업)	김기생(金基生)	21	북군 제주읍 노형리	징역 3년	1949-07-07	○	×
53	농(업)	안재옥(安在玉)	22	남군 표선면 가시리	징역 3년	1949-07-07	○	△
54	농(업)	전기순(田己順)	21	북군 제주읍 오동리	징역 3년	1949-07-07	○	△
55	농(업)	고정금(高貞衿)	17	북군 제주읍 오라리	징역 3년	1949-07-07	○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 여부	신뢰도
56	농(업)	안자선(安子善)	26	북군 애월면 어음리	징역 3년	1949-07-07	○	△
57	농(업)	김경선(金庚善)	29	남군 표선면 가시리	징역 3년	1949-07-07	×	
58	농(업)	강순추(姜順樞)	23	북군 제주읍 월평리	징역 3년	1949-07-07	○	△
59	농(업)	변연옥(邊連玉)	23	남군 대정면 신도리	징역 3년	1949-07-07	×	
60	농(업)	장진선(張珍先)	20	남군 안덕면 창천리	징역 3년	1949-07-07	○	△
61	농(업)	양기순(梁基順)	20	남군 남원면 의귀리	징역 3년	1949-07-07	○	△

※ '4·3위원회' 희생자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신뢰도를 따로 표시해 놓았음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부분 희생자들이 전주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수형인명부』에 전주형무소에 복역한 것으로 표기된 것을 유일한 근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탈옥수명부』가 공개되기 전까지 전주형무소의 여성 수형인들이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4·3위원회'에 신고한 내용 가운데 서대문형무소 수감 사실을 적은 희생자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김진주

4·3당시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당시 마을에 있던 순경들에게 마을에서 밥을 해줬는데 밤에 독약을 탔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쓰고 모슬포경찰서에 연행되어 제주시 주정공장으로 끌려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7년을 언도받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6·25 발발 후 행방불명되었다.

○ 이인현

1949년 1월(일자 미상) 산에서 숨어 지내던 조카와 내통한다는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 1949년 7월 7일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전주형무소를 거쳐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풀려나 서울 언니 집에 머물다가 사람들의 밀고로 다시 용산경찰서에 집혀간 후 1950년 9월 28일 한강백사장에서 총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시신을 수습 못해 행방불명되었다.

○ 강계옥

4·3사건 당시 월평동에 거주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재검속시 연행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 중 6·25 당시 행방불명되었다.

(2) 마포형무소 수형인의 행방

마포형무소 재소자 500여 명도 전부 출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타의에 의해 북한의 의용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쟁 이후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마포형무소 재소 중 생존자 김상년은 의용군에 강제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서울 수복 이후 광주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었다. 뒤에 현역군인으로 입대하여 생존을 유지하였다.¹⁶⁾ 정기성은 형과 함께 마포형무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형은 의용군에 지원하고, 본인은 목포로 내려와서 살다가 5년 뒤 제주에 갔다. 그는 제주에서 다시 형무소로 재수감되어 15년간 더 옥살이를 하였다.¹⁷⁾

『탈옥수명부』에서 확인되는 마포형무소 출옥자의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16) 金商年(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2002.3.26, 2007.7. 체록) 증언.

17) 鄭基星(남원읍 신례1리, 2000.12.14, 2007.7. 체록) 증언.

〈표 2〉 「탈옥수명부」에 수록된 마포형무소 복역자 명단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여부	신뢰도
1	어업	김계문(金桂紋)	32	북군 제주읍 도두리	무기	1948-12-27	○	△
2	목공	이대성(李大成)	26	북군 한림면 고산리	무기	1948-12-27	○	△
3	사원	양해길(梁亥吉)	25	북군 제주읍 삼도리	징역 20년	1948-12-03	○	△
4	농(업)	진남철(秦南赫)	20	북군 한림면 금악리	징역 20년	1948-12-03	○	△
5	농업	고창윤(高彰乙)	31	북군 한림면 귀덕리	징역 20년	1948-12-03	○	△
6	농업	고용수(高龍洙)	23	남군 서귀면 서흥리	징역 20년	1948-12-03	○	×
7	농업	김창종(金昌鍾)	22	북군 제주읍 회천리	징역 20년	1948-12-03	○	△
8	농업	현수석(玄壽石)	38	남군 서귀면 호근리	징역 20년	1948-12-03	○	△
9	이발	강인화(姜寅化)	45	남군 서귀면 서귀리	징역 20년	1948-12-03	○	△
10	공리	김상년(金商年)	21	북군 제주읍 이호리	징역 20년	1948-12-03	생존	
11	관리	현용석(玄容碩)	23	북군 제주읍 노형리	징역 20년	1948-12-03	○	△
12	농(업)	강계윤(姜桂胤)	25	북군 한림면 귀덕리	징역 20년	1948-12-03	○	△
13	무	이석형(李碩瑋)	25	북군 애월면 애월리	징역 20년	1948-12-04	○	△
14	사원	장무언(張武彦)	20	북군 애월면 광지리	징역 20년	1948-12-04	○	△
15	농(업)	고성남(高星南)	23	북군 제주읍 오동리	징역 20년	1948-12-04	○	△
16	車業	전원광(田元亮)	27	북군 제주읍 아라리	징역 20년	1948-12-04	×	
17	목공	현두삼(玄斗三)	27	북군 구좌면 종달리	징역 20년	1948-12-05	○	△
18	농(업)	고철주(高喆周)	23	남군 안덕면 감산리	징역 20년	1948-12-05	○	△
19	농(업)	고재오(高在五)	42	북군 제주읍 오라리	징역 20년	1948-12-05	○	△
20	농(업)	임군보(林君甫)	38	북군 애월면 하가리	징역 20년	1948-12-05	○	△
21	농(업)	강세능(姜世能)	35	북군 애월면 금덕리	징역 20년	1948-12-05	○	△
22	어업	이기환(李琦贊)	23	북군 조천면 신촌리	징역 20년	1948-12-05	×	
23	무직	홍칠석(洪七錫)	26	북군 애월면 상귀리	징역 20년	1948-12-05	○	△
24	농(업)	김병시(金秉時)	29	북군 제주읍 오동리	징역 20년	1948-12-05	○	△
25	농(업)	문정호(文正浩)	23	북군 제주읍 봉개리	징역 20년	1948-12-05	○	△
26	정미	변일성(邊日星)	21	북군 애월면 남읍리	징역 20년	1948-12-05	○	△
27	농(업)	변기삼(邊基三)	25	북군 애월면 금덕리	징역 20년	1948-12-07	×	
28	농(업)	강정훈(姜正勳)	27	북군 애월면 금덕리	징역 20년	1948-12-07	○	×
29	농(업)	이종시(李鍾時)	23	북군 애월면 금덕리	징역 20년	1948-12-07	○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 여부	신뢰도
30	농(업)	박영휴(朴永休)	21	북군 애월면 장전리	징역 20년	1948-12-07	○	△
31	직공	홍만택(洪万澤)	50	북군 한림면 귀덕리	징역 20년	1948-12-07	×	
32	농(업)	박용하(朴容河)	20	북군 애월면 광령리	징역 20년	1948-12-08	○	△
33	농(업)	김수봉(金壽鳳)	44	북군 제주읍 아라리	징역 20년	1948-12-08	×	
34	양봉	김태희(金泰熙)	30	북군 제주읍 영평리	징역 20년	1948-12-08	○	○
35	농(업)	오병현(吳炳鉉)	27	북군 제주읍 영평리	징역 20년	1948-12-08	○	△
36	농(업)	김병주(金炳注)	24	북군 제주읍 영평리	징역 20년	1948-12-08	×	
37	사원	정생두(鄭生斗)	34	북군 구좌면 상도리	징역 20년	1948-12-08	○	△
38	농(업)	한천수(韓千洙)	49	북군 제주읍 일도리	징역 20년	1948-12-08	×	
39	농(업)	전태하(田泰河)	33	북군 제주읍 아라리	징역 20년	1948-12-08	×	
40	농(업)	강문수(康紋洙)	42	북군 제주읍 오라리	징역 20년	1948-12-08	×	
41	서기	김영운(金永崙)	25	북군 제주읍 삼양리	징역 20년	1948-12-08	×	
42	관리	신응철(申應哲)	28	북군 한림면 금동리	징역 20년	1948-12-08	○	△
43	교원	현채운(玄彩雲)	24	북군 제주읍 노형리	징역 20년	1948-12-08	○	△
44	무직	정홍주(鄭洪珠)	23	남군 남원면 남원리	징역 20년	1948-12-08	×	
45	서기	홍중보(洪重寶)	38	북군 제주읍 이도리	징역 20년	1948-12-08	×	
46	서기	양성찬(梁性燦)	23	북군 제주읍 삼도리	징역 20년	1948-12-09	○	△
47	농(업)	장도현(張道賢)	37	북군 제주읍 삼도리	징역 20년	1948-12-10	×	
48	농(업)	강윤희(康允禧)	24	남군 서귀면 신희리	징역 20년	1948-12-10	○	△
49	정미소	백무성(白務性)	23	남군 서귀면 하효리	징역 20년	1948-12-10	○	△
50	농(업)	김두곤(金斗奎)	21	남군 서귀면 하효리	징역 20년	1948-12-10	×	
51	공리	현상옥(玄祥玉)	25	남군 서귀면 호근리	징역 20년	1948-12-10	○	△
52	농(업)	강종호(康鍾浩)	25	북군 애월면 하귀리	징역 20년	1948-12-10	○	△
53	농(업)	오광흠(吳光洽)	26	남군 남원면 남원리	징역 20년	1948-12-10	○	△
54	농(업)	강성흠(康誠洽)	19	남군 중문면 강정리	징역 20년	1948-12-12	○	△
55	농(업)	오화인(吳和仁)	19	남군 남원면 남원리	징역 20년	1948-12-12	○	△
56	농(업)	정병하(鄭丙夏)	21	남군 남원면 남원리	징역 20년	1948-12-12	○	△
57	농(업)	오영준(吳永準)	25	북군 구좌면 하도리	징역 20년	1948-12-12	○	△
58	강사	송태규(宋泰奎)	22	남군 서귀면 호근리	징역 20년	1948-12-12	○	△
59	농(업)	송권삼(宋權三)	32	북군 애월면 하귀리	징역 20년	1948-12-12	×	
60	농(업)	박두승(朴斗升)	36	북군 제주읍 연동리	징역 20년	1948-12-13	○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여부	신뢰도
61	상(업)	김준배(金椿培)	22	북군 제주읍 봉개리	징역 20년	1948-12-13	최근 사망	
62	농(업)	김희숙(金熙淑)	24	남군 서귀면 토평리	징역 20년	1948-12-13	○	△
63	사원	김광수(金光洙)	20	북군 제주읍 이도리	징역 15년	1948-12-09	×	
64	서기	양성환(梁成煥)	32	남군 남원면 외귀리	징역 15년	1948-12-09	○	△
65	교원	김한보(金漢保)	26	북군 조천면 함덕리	징역 15년	1948-12-09	×	
66	농(업)	강준선(姜俊善)	30	북군 애월면 금덕리	징역 15년	1948-12-09	×	
67	농(업)	김기임(金基任)	55	북군 제주읍 영평리	징역 15년	1948-12-10	○	△
68	농(업)	양지현(梁知賢)	22	북군 제주읍 도두리	징역 15년	1948-12-27	×	
69	농(업)	김택수(金澤洙)	23	북군 제주읍 이호리	징역 15년	1948-12-27	○	△
70	농(업)	문두찬(文斗燦)	21	북군 제주읍 도두리	징역 15년	1948-12-27	○	△
71	농(업)	안상웅(安尙應)	36	북군 제주읍 이도리	징역 15년	1948-12-28	○	△
72	농(업)	고윤보(高潤普)	32	북군 제주읍 봉개리	징역 15년	1948-12-28	○	△
73	목공	강창언(康昌彦)	21	북군 제주읍 건입리	징역 15년	1948-12-28	○	△
74	농(업)	김상호(金尙浩)	31	북군 조천면 신촌리	징역 15년	1948-12-28	○	△
75	농(업)	송재수(宋在洙)	25	북군 조천면 대흘리	징역 15년	1948-12-28	○	△
76	농(업)	이기인(李基仁)	25	북군 조천면 조천리	징역 15년	1948-12-28	×	
77	농(업)	채석배(蔡碩培)	22	북군 조천면 조천리	징역 15년	1948-12-28	×	
78	공원	김현환(金玄煥)	21	북군 조천면 조천리	징역 15년	1948-12-28	×	
79	농(업)	양운주(梁雲柱)	22	북군 조천면 조천리	징역 15년	1948-12-28	×	
80	농(업)	채고배(蔡故拜)	28	북군 제주읍 회천리	징역 15년	1948-12-28	○	△
81	농(업)	서경석(徐京錫)	19	남군 중문면 도순리	징역 5년	1948-12-26	○	△
82	농(업)	강상호(姜尙鎬)	18	북군 제주읍 노형리	징역 5년	1948-12-27	○	△
83	농(업)	송인현(宋仁賢)	37	북군 제주읍 노형리	사형	1949-06-28	×	
84	농(업)	송원삼(宋元三)	27	북군 제주읍 회천리	사형	1949-06-28	○	△
85	농(업)	강두삼(康斗三)	27	남군 표선면 가시리	사형	1949-06-28	○	○
86	농(업)	부울생(夫乙生)	25	북군 조천면 교래리	사형	1949-06-28	○	○
87	농(업)	강자규(姜子奎)	29	북군 애월면 상귀리	사형	1949-06-28	○	△
88	농(업)	강중반(姜仲班)	21	북군 애월면 상귀리	사형	1949-06-28	○	△
89	농(업)	김두호(金斗濤)	31	남군 남원면 수망리	사형	1949-06-28	○	○
90	무직	김평대(金平濤)	27	북군 제주읍 오라리	사형	1949-06-28	○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여부	신뢰도
91	농(업)	김남해(金南海)	30	북군 조천면 대흘리	사형	1949-06-28	×	
92	농(업)	허남홍(許南弘)	22	북군 조천면 선흘리	사형	1949-06-28	○	○
93	농(업)	이일진(李一珍)	24	남군 대정면 하모리	사형	1949-06-28	○	○
94	농(업)	김두현(金斗憲)	23	북군 제주읍 노형리	사형	1949-06-28	○	△
95	농(업)	강덕룡(姜德龍)	50	북군 제주읍 용강리	사형	1949-06-28	×	
96	농(업)	김자학(金子鶴)	26	북군 한림면 동명리	사형	1949-06-28	○	△
97	농(업)	한치훈(韓致勳)	31	북군 조천면 와산리	사형	1949-06-28	○	○
98	농(업)	김두옥(金斗玉)	24	남군 성산면 난산리	사형	1949-06-28	○	○
99	농(업)	오만석(吳萬石)	24	남군 표선면 가시리	사형	1949-06-28	○	△
100	농(업)	한기홍(韓己出)	41	북군 제주읍 월평리	사형	1949-06-28	×	
101	선전책	권석도(權碩道)	22	북군 조천면 조천리	사형	1949-06-28	○	○
102	농(업)	강상근(姜尙根)	26	남군 대정면 신평리	사형	1949-06-28	×	
103	농(업)	김기풍(金基豐)	24	북군 제주읍 노형리	사형	1949-06-28	○	○
104	농(업)	오재두(吳在斗)	27	남군 표선면 가시리	사형	1949-06-28	○	△
105	농(업)	강행택(姜行澤)	25	북군 대정면 일과리	사형	1949-06-28	×	
106	농(업)	송명운(宋明雲)	27	남군 대정면 신평리	사형	1949-06-28	×	
107	농(업)	문종수(文宗壽)	29	북군 제주읍 도두리	사형	1949-06-28	○	△
108	농(업)	박필현(朴弼現)	24	북군 조천면 북촌리	사형	1949-06-28	×	
109	농(업)	오남룡(吳南龍)	27	남군 성산면 수산리	사형	1949-06-28	○	△
110	농(업)	강원기(康元基)	28	남군 표선면 가시리	사형	1949-06-29	○	△
111	농(업)	한봉수(韓奉秀)	21	북군 조천면 북촌리	사형	1949-06-29	○	△
112	목공	원응석(元應錫)	27	남군 중문면 중문리	사형	1949-06-29	○	△
113	농(업)	오한진(吳漢鎭)	34	남군 남원면 의귀리	사형	1949-06-29	○	△
114	농(업)	문정화(文貞化)	24	남군 남원면 한남리	사형	1949-06-29	○	○
115	농(업)	김두행(金斗行)	26	북군 한림면 명월리	사형	1949-06-29	○	○
116	무직	김여선(金麗善)	22	남군 안덕면 동광리	사형	1949-06-29	○	△
117	농(업)	오영홍(吳永弘)	30	남군 남원면 의귀리	사형	1949-06-29	○	△
118	농(업)	김창홍(金昌洪)	23	남군 남원면 신흥리	사형	1949-06-29	○	△
119	교원	김민학(金敏學)	28	북군 조천면 조천리	사형	1949-06-29	×	
120	농업	홍천표(洪天杓)	32	북군 한림면 귀덕리	사형	1949-06-29	○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인도일자	신고 여부	신뢰도
121	학생	김광필(金光弼)	21	북군 제주읍 화북리	사형	1949-06-29	○	○
122	교원	강병인(姜柄仁)	24	북군 애월면 어도리	사형	1949-06-29	○	△
123	학생	황병익(黃秉益)	22	북군 조천면 조천리	사형	1949-06-29	○	○
124	농(업)	오국보(吳國寶)	32	남군 표선면 가시리	사형	1949-06-29	○	△
125	무(직)	송병성(宋柄成)	22	북군 조천면 조천리	사형	1949-06-29	×	
126	농(업)	오국임(吳國任)	27	남군 표선면 가시리	사형	1949-06-29	○	△
127	무(직)	김순원(金順元)	20	북군 제주읍 삼양리	사형	1949-06-29	×	
128	생도	김성오(金性五)	23	북군 한림면 한림리	사형	1949-06-29	×	
129	농(업)	김광준(金光俊)	25	북군 제주읍 영평리	무기	1949-07-01	×	
130	농(업)	강용수(姜龍洙)	25	북군 제주읍 함평리	무기	1949-07-01	○	△
131	농(업)	이완택(李完宅)	22	북군 제주읍 연동리	무기	1949-07-01	×	
132	농(업)	양신생(梁臣生)	27	북군 제주읍 함평리	무기	1949-07-01	○	△
133	농(업)	유창일(兪昌一)	21	북군 제주읍 영평리	무기	1949-07-01	○	△
134	농(업)	이권형(李權珩)	28	북군 제주읍 용강리	무기	1949-07-01	○	△
135	무(직)	임세봉(任世奉)	50	북군 제주읍 함평리	무기	1949-07-01	×	
136	무(직)	유용국(兪用國)	39	북군 제주읍 영평리	무기	1949-07-01	×	
137	농(업)	고수웅(高秀雄)	24	북군 제주읍 도련리	무기	1949-07-01	×	
138	농(업)	백문수(白文受)	23	북군 조천면 선흘리	무기	1949-07-01	○	△
139	농(업)	장치영(張致榮)	32	북군 제주읍 연동리	무기	1949-07-01	×	
140	농(업)	김재규(金在奎)	27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141	농(업)	김순택(金順澤)	21	북군 제주읍 도련리	무기	1949-07-01	○	△
142	농(업)	이문추(李文樞)	22	북군 제주읍 도련리	무기	1949-07-01	○	△
143	농(업)	김안등(金安等)	23	북군 조천면 함덕리	무기	1949-07-01	○	△
144	농(업)	이학수(李鶴壽)	36	북군 제주읍 오동리	무기	1949-07-01	○	△
145	농(업)	김희현(金熙縣)	25	북군 제주읍 이호리	무기	1949-07-01	×	
146	농(업)	고주봉(高柱鳳)	23	북군 제주읍 도두리	무기	1949-07-01	×	
147	농(업)	소찬택(邵贊宅)	21	남군 안덕면 상천리	무기	1949-07-01	○	△
148	농(업)	이만생(李晩生)	27	북군 제주읍 오동리	무기	1949-07-01	○	△
149	농(업)	박성찬(朴性贊)	26	북군 제주읍 도평리	무기	1949-07-01	○	△
150	농(업)	김성택(金成澤)	20	북군 조천면 북촌리	무기	1949-07-01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 여부	신뢰도
151	농(업)	김영준(金永俊)	30	북군 애월면 광령리	무기	1949-07-01	○	△
152	농(업)	김영숙(金永淑)	36	남군 표선면 성읍리	무기	1949-07-01	×	
153	농(업)	김병림(金柄林)	21	북군 제주읍 해안리	무기	1949-07-01	×	
154	농(업)	김대길(金大吉)	26	북군 조천면 와산리	무기	1949-07-01	○	△
155	농(업)	김만거(金萬炬)	27	북군 조천면 와산리	무기	1949-07-01	○	△
156	농(업)	김희희(金熙熙)	30	북군 제주읍 이호리	무기	1949-07-01	×	
157	농(업)	양일중(梁一中)	36	북군 애월면 어도리	무기	1949-07-01	○	△
158	농(업)	홍신우(洪信佑)	21	북군 애월면 상귀리	무기	1949-07-01	○	△
159	농(업)	강유표(姜尤杓)	25	북군 애월면 장전리	무기	1949-07-01	○	△
160	농(업)	김성길(金成吉)	25	북군 제주읍 이호리	무기	1949-07-01	○	△
161	농(업)	강재현(姜在鉉)	21	북군 애월면 상귀리	무기	1949-07-01	○	△
162	의업	부홍현(夫洪鉉)	31	북군 제주읍 화북리	무기	1949-07-01	○	△
163	농(업)	김명생(金明生)	25	북군 애월면 어읍리	무기	1949-07-01	○	△
164	농(업)	김영구(金榮球)	30	북군 애월면 광령리	무기	1949-07-01	×	
165	농(업)	고평송(高平松)	21	북군 조천면 대흘리	무기	1949-07-01	○	△
166	농(업)	고용순(高龍璵)	26	북군 애월면 광령리	무기	1949-07-01	○	△
167	농(업)	부영호(夫榮鎬)	21	북군 구좌면 동북리	무기	1949-07-01	○	△
168	농(업)	김시각(金時覺)	27	북군 조천면 조천리	무기	1949-07-01	○	△
169	농(업)	문인택(文仁澤)	27	북군 조천면 북촌리	무기	1949-07-01	○	△
170	농(업)	이성희(李聖熙)	27	남군 대정면 하모리	무기	1949-07-01	○	△
171	농(업)	김익중(金益中)	29	북군 애월면 하귀리	무기	1949-07-01	○	△
172	농(업)	김학로(金學魯)	25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
173	농(업)	임일찬(任日贊)	22	북군 제주읍 연동리	무기	1949-07-01	×	
174	농(업)	문상훈(文相勳)	22	북군 제주읍 오라리	무기	1949-07-01	×	
175	농(업)	김두병(金斗柄)	20	북군 제주읍 삼양리	무기	1949-07-01	○	△
176	농(업)	김봉연(金奉彦)	25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
177	농(업)	김태규(金泰圭)	23	북군 제주읍 도두리	무기	1949-07-01	○	△
178	농(업)	김용민(金容敏)	33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179	농(업)	부은진(夫銀珍)	35	북군 제주읍 용강리	무기	1949-07-01	○	○
180	농(업)	양영구(梁榮龜)	32	북군 제주읍 함명리	무기	1949-07-01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 여부	신뢰도
181	농(업)	김민중(金旻鍾)	27	북군 제주읍 이호리	무기	1949-07-01	○	△
182	약상	정인식(鄭寅植)	23	북군 제주읍 오동리	무기	1949-07-01	○	△
183	농(업)	강학반(姜學蕃)	24	북군 제주읍 원평리	무기	1949-07-01	×	
184	농(업)	양병숙(梁柄淑)	28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185	목공	김병주(金秉柱)	28	북군 제주읍 아라리	무기	1949-07-01	○	△
186	농(업)	정원중(鄭元鍾)	28	남군 남원면 신례리	무기	1949-07-01	○	△
187	농(업)	현창제(玄昌濟)	20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
188	농(업)	오의창(吳宜昌)	30	북군 제주읍 영평리	무기	1949-07-01	○	△
189	농(업)	오인호(吳仁昊)	34	남군 남원면 한남리	무기	1949-07-01	○	△
190	농(업)	현문평(玄文平)	27	남군 남원면 한남리	무기	1949-07-01	○	○
191	농(업)	김덕수(金德洙)	26	북군 제주읍 아라리	무기	1949-07-01	○	△
192	농(업)	김학봉(金學峰)	26	남군 중문면 색달리	무기	1949-07-01	×	
193	농(업)	허달희(許達禧)	26	남군 중문면 색달리	무기	1949-07-01	○	△
194	농(업)	양문오(梁文五)	22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195	농(업)	양달조(梁達祚)	50	남군 남원면 의귀리	무기	1949-07-01	○	△
196	농(업)	한칭목(韓稱穆)	21	남군 성산면 난산리	무기	1949-07-01	○	△
197	농(업)	양생돌(梁生玆)	22	북군 제주읍 함명리	무기	1949-07-01	○	△
198	선업	김광백(金光伯)	23	북군 제주읍 화북리	무기	1949-07-01	×	
199	농(업)	홍남기(洪南基)	25	북군 애월면 수산리	무기	1949-07-01	○	△
200	상업	김승휴(金承休)	32	북군 애월면 애월리	무기	1949-07-01	○	△
201	농(업)	김두호(金斗昊)	29	남군 남원면 의귀리	무기	1949-07-01	○	△
202	농(업)	천두팔(千斗八)	22	남군 안덕면 상창리	무기	1949-07-01	○	△
203	농(업)	김원부(金元富)	25	남군 남원면 남원리	무기	1949-07-01	○	△
204	농(업)	김영주(金永柱)	23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
205	농(업)	송병원(宋柄元)	26	북군 조천면 교래리	무기	1949-07-01	○	△
206	농(업)	김두인(金斗仁)	35	북군 한림면 용수리	무기	1949-07-01	○	△
207	농(업)	오갑정(吳甲正)	25	남군 남원면 한남리	무기	1949-07-01	○	△
208	교원	문옥주(文玉柱)	31	북군 제주읍 도두리	무기	1949-07-01	일본 밀항	
209	교원	정석봉(鄭錫封)	30	남군 남원면 신례리	무기	1949-07-01	○	△

278 耽羅文化 40호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관결	연도일자	신고 여부	신리도
210	농(업)	현순석(玄順錫)	23	남군 서귀면 서흥리	무기	1949-07-01	○	△
211	농(업)	김태현(金泰鉉)	24	북군 제주읍 회천리	무기	1949-07-01	○	△
212	학생	부행규(夫幸奎)	22	북군 구좌면 상도리	무기	1949-07-01	○	△
213	농(업)	김중하(金仲廈)	23	북군 제주읍 연동리	무기	1949-07-01	○	△
214	농(업)	김재훈(金在勳)	35	북군 제주읍 영명리	무기	1949-07-01	○	△
215	농(업)	고기진(高琦珍)	24	북군 제주읍 회천리	무기	1949-07-01	○	△
216	농(업)	양근오(梁謹五)	30	북군 조천면 선흥리	무기	1949-07-01	○	△
217	농(업)	정경룡(鄭庚龍)	26	북군 한림면 명월리	무기	1949-07-01	○	△
218	무(직)	이내형(李來珩)	29	북군 제주읍 화북리	무기	1949-07-01	×	
219	무(직)	김병호(金秉鎬)	27	북군 제주읍 화북리	무기	1949-07-01	○	△
220	농(업)	양우빈(梁宇彬)	27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
221	농(업)	고방전(高邦銓)	54	북군 제주읍 도련리	무기	1949-07-01	○	△
222	농(업)	김재훈(金在勳)	24	남군 표선면 가시리	무기	1949-07-01	○	△
223	농(업)	김인보(金仁寶)	21	남군 표선면 가시리	무기	1949-07-01	×	
224	농(업)	안한봉(安翰鳳)	36	남군 표선면 가시리	무기	1949-07-01	○	△
225	농(업)	이맹임(李孟任)	26	북군 조천면 북촌리	무기	1949-07-01	×	
226	농(업)	강윤식(姜允式)	39	북군 조천면 대흘리	무기	1949-07-01	○	△
227	농(업)	김중문(金仲文)	24	북군 조천면 선흥리	무기	1949-07-01	×	
228	농(업)	김완봉(金完鳳)	20	북군 조천면 북촌리	무기	1949-07-01	×	
229	회사원	김공숙(金供淑)	39	남군 성산면 난산리	무기	1949-07-01	×	
230	농(업)	김경완(金京完)	22	북군 조천면 선흥리	무기	1949-07-01	○	△
231	농(업)	오치혁(吳治赫)	22	북군 구좌면 하도리	무기	1949-07-01	○	△
232	농(업)	강공여(姜公汝)	32	북군 한림면 명월리	무기	1949-07-01	○	△
233	농(업)	현문휴(玄文休)	28	남군 남원면 수명리	무기	1949-07-01	×	
234	학생	양완후(梁玩厚)	22	북군 제주읍 도두리	무기	1949-07-01	×	
235	차조수	고재남(高在旻)	29	북군 제주읍 용담리	무기	1949-07-01	○	△
236	농(업)	오병덕(吳柄德)	31	북군 제주읍 아라리	무기	1949-07-01	×	
237	농(업)	김병우(金秉佑)	37	북군 제주읍 오동리	무기	1949-07-01	○	△
238	농(업)	양맹선(梁孟善)	36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
239	약상	이완영(李完榮)	41	북군 제주읍 외도리	무기	1949-07-01	○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인도일자	신고 여부	신뢰도
240	농(업)	장희삼(張熙三)	35	북군 애월면 어도리	무기	1949-07-01	○	△
241	농(업)	부영주(夫英珠)	25	북군 제주읍 영평리	무기	1949-07-01	○	△
242	농(업)	신방수(申方洙)	35	북군 제주읍 오라리	무기	1949-07-01	○	△
243	농(업)	김덕중(金德中)	23	북군 제주읍 오라리	무기	1949-07-01	○	△
244	농(업)	백자춘(白子春)	29	북군 제주읍 도련리	무기	1949-07-01	○	△
245	농(업)	오남화(吳南華)	20	남군 성산면 수산리	무기	1949-07-01	○	△
246	농(업)	김성규(金星圭)	22	남군 안덕면 상천리	무기	1949-07-01	×	
247	농(업)	문경일(文景一)	26	북군 제주읍 영평리	무기	1949-07-01	×	
248	농(업)	문주인(文柱仁)	29	북군 조천면 북촌리	무기	1949-07-01	×	
249	농(업)	김용주(金容柱)	22	북군 제주읍 이호리	무기	1949-07-01	○	△
250	농(업)	김두석(金斗錫)	26	북군 제주읍 삼양리	무기	1949-07-01	○	△
251	농(업)	문지윤(文智允)	27	북군 제주읍 삼양리	무기	1949-07-01	×	
252	농(업)	송자정(宋子貞)	30	북군 제주읍 월평리	무기	1949-07-01	○	△
253	농(업)	박희산(朴蓆僖)	23	북군 제주읍 오라리	무기	1949-07-01	○	△
254	농(업)	김상호(金祥昊)	31	북군 제주읍 함덕리	무기	1949-07-01	○	△
255	농(업)	고만구(高萬球)	26	북군 제주읍 함명리	무기	1949-07-01	○	△
256	선원	강현렬(康漢烈)	23	북군 조천면 함덕리	무기	1949-07-01	○	△
257	농(업)	오영춘(吳永春)	27	남군 표선면 가시리	무기	1949-07-01	○	△
258	농(업)	모만필(牟萬弼)	23	북군 제주읍 화곡리	무기	1949-07-01	○	△
259	선원	박상책(朴相策)	24	북군 조천면 함덕리	무기	1949-07-01	○	△
260	농(업)	이시우(李時雨)	30	북군 제주읍 오동리	무기	1949-07-01	×	
261	농(업)	문규우(文圭禹)	23	북군 제주읍 노형리	무기	1949-07-01	○	△
262	농(업)	김호근(金奘根)	23	북군 제주읍 화곡리	무기	1949-07-01	○	△
263	농(업)	이완진(李完振)	52	북군 한림면 고산리	무기	1949-07-01	○	△
264	농(업)	박기수(朴基洙)	31	북군 조천면 선흘리	무기	1949-07-01	○	△
265	농(업)	하용현(河用現)	20	북군 제주읍 해안리	무기	1949-07-01	○	△
266	농(업)	김형주(金衡珠)	24	남군 서귀면 신희리	무기	1949-07-01	○	△
267	농(업)	김의창(金義昌)	20	북군 조천면 신희리	무기	1949-07-01	○	△
268	농(업)	고태권(高泰權)	22	남군 성산면 수산리	무기	1949-07-01	○	△
269	농(업)	김인현(金仁賢)	28	북군 애월면 어도리	무기	1949-07-01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연도일자	신고 여부	신뢰도
270	농(업)	오문정(吳文正)	25	남군 성산면 난산리	무기	1949-07-01	○	△
271	농(업)	이성생(李成生)	28	북군 제주읍 오동리	무기	1949-07-01	×	
272	농(업)	양대규(梁大圭)	21	북군 제주읍 도련리	무기	1949-07-01	○	△
273	농(업)	고정룡(高禎脣)	23	남군 성산면 수산리	무기	1949-07-01	○	△
274	농(업)	남행탁(南行卓)	30	북군 조천면 함덕리	무기	1949-07-01	○	○
275	농(업)	양명호(梁明浩)	21	남군 안덕면 동광리	무기	1949-07-01	×	
276	농(업)	송갑생(宋甲生)	25	북군 제주읍 연동리	무기	1949-07-01	○	△
277	농(업)	강태운(姜泰雲)	24	북군 애월면 장전리	무기	1949-07-01	○	△
278	농(업)	김복림(金福林)	25	북군 조천면 신흥리	무기	1949-07-01	○	△
279	농(업)	홍순연(洪淳彦)	24	북군 애월면 상귀리	무기	1949-07-01	○	△
280	농(업)	양승현(梁承賢)	22	북군 애월면 어도리	무기	1949-07-01	○	△
281	농(업)	강용생(姜龍生)	30	북군 조천면 와산리	무기	1949-07-01	○	○
282	농(업)	이덕홍(李德弘)	24	북군 조천면 함덕리	무기	1949-07-01	○	△
283	농(업)	김동안(金東安)	27	북군 조천면 함덕리	무기	1949-07-01	○	△
284	농(업)	고갑룡(高甲龍)	24	남군 안덕면 감산리	무기	1949-07-01	○	△
285	농(업)	현석중(玄碩重)	30	남군 남원면 남원리	무기	1949-07-01	×	
286	농(업)	정기성(鄭基星)	27	남군 남원면 신례리	무기	1949-07-01		생존
287	무(직)	이성옥(李成玉)	31	남군 중문면 강정리	무기	1949-07-01	○	△
288	농(업)	오달만(吳達萬)	22	남군 서귀면 서흥리	무기	1949-07-01	○	△
289	농(업)	한재철(韓在喆)	24	남군 서귀면 서흥리	무기	1949-07-01	○	△
290	농(업)	송문옥(宋文玉)	25	남군 남원면 남원리	무기	1949-07-01	○	△
291	농(업)	강성춘(姜成春)	29	남군 남원면 한남리	무기	1949-07-01	○	△
292	농(업)	고병룡(高秉律)	21	북군 한림면 대립리	무기	1949-07-01	○	△
293	농(업)	고봉희(高鳳禧)	28	남군 남원면 한남리	무기	1949-07-01	○	△
294	농(업)	이태평(李太平)	29	남군 중문면 강정리	무기	1949-07-01	×	
295	농(업)	김광수(金光洙)	30	남군 중문면 중문리	무기	1949-07-01	×	
296	농(업)	김영진(金榮珍)	26	남군 남원면 신흥리	무기	1949-07-01	○	△
297	무(직)	오두생(吳斗生)	25	남군 남원면 한남리	무기	1949-07-01	○	△
298	농(업)	허평식(許平植)	24	북군 구좌면 송당리	무기	1949-07-01	○	△
299	농(업)	고남권(高南權)	28	남군 서귀면 호근리	무기	1949-07-01	×	

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언도일자	신고 여부	신뢰도
300	농(업)	양경하(梁馨河)	31	남군 안덕면 화순리	무기	1949-07-01	○	△
301	병원조수	김기공(金基供)	21	북군 제주읍 의도리	무기	1949-07-01	×	
302	농(업)	부치량(夫致良)	20	북군 애월면 수산리	무기	1949-07-01	○	△
303	학생	고현술(高鉉述)	20	북군 애월면 하귀리	무기	1949-07-01	○	△
304	농(업)	강창하(姜昌河)	34	북군 애월면 어도리	무기	1949-07-01	○	△
305	목공	이행인(李行彦)	37	남군 대정면 신평리	무기	1949-07-01	○	△
306	농(업)	오상준(吳常準)	33	남군 서귀면 동흥리	무기	1949-07-01	○	△
307	선원	송태진(宋泰珍)	25	남군 대정면 무릉리	무기	1949-07-01	○	△
308	농(업)	고점각(高漸恪)	22	북군 제주읍 도련리	무기	1949-07-01	○	△
309	농(업)	고태화(高泰化)	30	남군 남원면 의귀리	무기	1949-07-01	×	

※ '4·3위원회' 희생자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신뢰도를 따로 표시해 놓았음

『수형인명부』 외에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마포형무소 수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그러므로 『탈옥수명부』가 공개되기 전까지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 언도되었다가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탈옥수명부』를 통해 대구형무소 등에서 마포형무소로 이송한 사실도 일부 확인된다.

'4·3위원회'에 신고한 내용 가운데 신뢰도가 높은 희생자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체포 또는 형무소 수감 경위가 구체적인 사례

○ 현두삼

1947년 6월 6일 무허가로 집회하여 민청에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는 이유로 1947년 7월 31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벌금 2천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1948년 11월(일자 미상) 종달국민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던 중 토벌대에 연행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김병시

4·3사건 당시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전소되자 용담리 속칭 정드르 부근에 방을 구해서 생활하던 중 1948년(월일 미상) 증산간 마을에서 피난 왔다는 이유로 서북청년회 단원들에게 끌려갔는데, 1948년 12월 5일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김태희

4·3사건 당시 양봉업을 하며 대동청년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던 중 1948년 11월(일자 미상) 토벌대의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가 무장대에 쌀을 보급하였다는 고발을 받고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서 3년여 동안 수감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왔는데(연월일 미상) 계속적인 연행과 감시, 수감후유증 등으로 1989년 1월 31일 사망하였다.

②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사례

○ 강두삼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8년 10월 21일 토벌대가 마을을 전소시키며 소개령을 내리자 피신하였다가 1949년 봄(월일 미상) 토벌대에 체포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50년 5월 16일 옥사하였다.

○ 부을생

4·3사건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9년 2월 4일 발생한 군경 토벌작전 때 피신하였다가 지수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1949년 4월(일자 미

상) 스스로 토벌대를 찾아갔다가 주정공장에 감금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김두호

4·3사건 당시 토벌대가 마을을 불 지르고 주민에게 총격을 가하자 가족과 함께 피신하였다가 1949년 3월(일자 미상) 스스로 토벌대를 찾아갔다가 주정공장에 감금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허남홍

4·3사건 당시 소개령이 내려졌으나 소개하지 않고 형들(허남익, 허남섭)과 함께 속칭 앞선벌에 있는 굴속에 숨어 지내던 중 1949년 봄(월일 미상) 토벌대에 연행되었는데, 1949년 6월 28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같은 해 말(월일 미상) 병보석으로 출소하였으나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같은 해 12월 12일 사망하였다.

○ 이일진

1948년 12월 19일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붙잡혀 서귀포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1950년 3월 3일 마포형무소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므로 생필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온 바 있으나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 불명되었음.

○ 한치운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8년 12월(일자 미상) 경찰의 출두명령을 받고 경찰에 찾아갔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김두옥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1949년 초 추정)

토벌대에 연행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권석도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협동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48년 11월(일자 미상) 소개령이 내려지자 산으로 피신하였다가, 1949년 4월(일자 미상) 토벌대에게 연행된 후, 1949년 6월 28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49년 10월 10일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 김기풍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 하던 중, 1948년 12월 14일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전소되자 피신 생활하다가 1949년 봄(월일 미상) 토벌대에 연행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문정화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던 중, 1948년 11월 8일 토벌대에 연행되어 오랜 기간 취조를 받았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김두행

4·3사건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8년 11월(일자 미상) 소개령 때 무서워 피신하였다가(1949년 초 추정) 토벌대에 연행됐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홍천표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9년 5월(일자 미상) 집으로 들이닥친 대한청년단 단원들에 의해 모슬포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 김광필

4·3사건 당시 학교(명 미상) 재학 중 1948년(월일 미상) 산으로 피신하여 생활하다가 1949년 봄(월일 미상) 귀순하라는 말을 듣고 토벌대에 스스로 찾아갔는데 감금되어 1949년 6월 29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병보석으로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 중 수감 후유증으로 1950년 7월 19일 사망하였다.

○ 황병익

4·3사건 당시 조천중학원에 재학하던 중, 1949년 3월(일자 미상) 경찰들에 의해 조천지서로 연행되었는데, 그 후 목포형무소를 거쳐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③ 형무소 복역 중 옥사한 사례

4·3사건 관련 수형인 가운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인해 병사하거나 미결수로 재판 대기 중에 있다가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마포형무소에서 옥사한 재소자로는 『마포형무소 수용자신분장』과 『마포형무소 재소자명부』에 김태경(49.10.15), 김용생(49.8.13), 김윤복(49.9.8) 등이 확인된다(괄호 안은 사망 일자).

○ 부은진

1948년 10월(일자 미상) 마을에 들이닥친 경찰이 불을 지르며 총격을 가하자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하던 중 아내(전경선), 딸(부문자)은 총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1949년 초 추정) 체포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50년 5월 6일 옥사하였다.

○ 현문평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8년 11월 7일 마을에 들어닥친 토벌대가 가옥을 방화할 때 연행된 후 오랜 기간 감금되어 취조를 받았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50년 6월 1일 옥사하였다.

○ 이완영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산으로 피신하였는데, 1949년 봄(월일 미상) 토벌대에 연행된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50년 1월 12일 옥사하였다.

○ 강용생

4·3사건 당시 마을 서당 훈장으로서 생활하던 중 1949년 2월(일자 미상) 토벌대에 연행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49년 8월 13일 옥사하였다.

④ 기타 사례

○ 남행탁

4·3사건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8년 4월(일자 미상) 경찰에 연행되어 무장대에게 협조한 사실을 말하라며 온갖 고문을 당했으며, 1949년 7월 1일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나병이 들어(연월일 미상) 소록도로 이송된 후 투병생활 하다가 1962년(월일 미상) 전북 익산시로 이주하여 정부의 생계비로 생활하다가 1997년 2월 27일 사망하였다.

서대문·마포·인천형무소에 수감된 4·3관련 재소자들은 대부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북한 인민군이 서울·인천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출옥한 공통점을 갖

고 있다. 냉전·분단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들의 행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4·3 희생자 신고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이들은 철저히 관심 밖에 있었다. 이 글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탈옥수명부』를 새로이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많은 출옥자의 기본 신상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서대문형무소 수형 희생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으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직전 서울지역의 두 형무소(서대문·마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4·3사건 관련 제주출신 재소자들은 4·3 당시 두 차례 치러진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 수형인이었다. '1948년 군법회의'로 서울지역의 서대문·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수형인은 서대문형무소에 10명 내외(주로 여성 수형인), 마포형무소에 120명 내외(징역 20년형 97명, 징역 15년형 20여 명, 기타) 정도로 파악된다. 그리고 '1949년 군법회의'로 복역 중이던 수형인은 서대문형무소에 80명 내외(주로 여성 수형인), 마포형무소에 350명 내외(무기형 223명,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 수형인 96명, 기타) 정도로 파악된다.

전주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여성 수형인들은 대부분 1949년 여름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지금까지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부분 수형인들이 전주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수형인명부』에 전주형무소에 복역한 것으로 표기되어 『탈옥수명부』가 공개되기 전까지 전주형무소의 여성 수형인들이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서대문·마포형무소와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북한 인민군이 형무소를 장악함에 따라 출소하여 각지로 흩어졌다.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여성 수형인 70여 명은 서울에서 북한 치하에서

집단적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이인현은 전쟁이 발발하자 출옥하여 서울 언니 집에 머물다가 다시 용산경찰서에 잡혀간 후 1950년 9월 28일 한강백사장에서 총살되었으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또한 『탈옥수명부』를 통해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 언도되었다가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전체 사형수 345명 중 9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서 복역함. 96명 중 46명이 『탈옥수명부』를 통해 확인됨). 또한 『탈옥수명부』를 통해 대구형무소 등에서 마포형무소로 이송한 사실도 일부 확인된다.

한편으로는 이번 서대문·마포 행방불명 희생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연구를 통한 진상규명에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앞의 출옥자 명단 표를 통해서도 보듯이,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희생자 신고 사례가 전체 61명 중 35명(57.3%), 마포형무소의 경우 전체 309명 중 225명(72.8%)에 불과해 아직도 미신고자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희생자 신고 내용이 대부분 부실하여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어려운 실정임이 확인된다.

또한 서대문·마포형무소 수형인의 경우 전쟁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출옥하여 북한 인민군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가 전쟁 후 북한에 정착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결과, 2000년 8월부터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2003년 5월의 제7차 이산가족방문단에 포함된 제주시 이호동의 김용연(2003년 당시 101세)과 김창중씨 모자는 금강산 온정각에서 큰형인 김경중씨를 만나고 돌아왔다. 김경중씨는 1949년 7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인천형무소에 복역 중이다

가 한국전쟁 직후 행방불명되었던 장본인이다. 이러한 복으로 간 수형인들이 상당수 아직도 북한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IV. 판결문을 통해 본 광주형무소 재소자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이후 경찰 당국에서 검거하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계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형사사건이 많아서 현지 심리원과 검찰진으로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중앙 사법부에서는 5월 26일 제주지역에 특별히 심판관과 검찰관을 파견하였다. 서울로부터 내도한 판검사 일행 12명은 6월 11일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피고 37명에 관련된 42건을 판결하였다.

제주도에 왔던 판·검사들은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 제주도에서의 재판이 힘들었음을 미군정청에 보고했고, 미군정청은 이를 받아들여 4·3 관련 재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에서 파견된 판·검사 일행이 재판을 마치고 귀경한 뒤에도 제주지방법원 단독으로 재판을 행하기는 했지만, 500명에 달하는 혐의자들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또한 재판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요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광주로 옮겨서 재판을 치르자는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피고인들을 광주지방 검찰청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1948년 8월 23일 제주검찰청에서 심문을 받던 4·3 피의자 32명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9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 부검사장 김영천 검사로부터 대법원장 명령에 의하여 이들에 대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¹⁸⁾ 9월 3일에는 추가로 40명이 광주로 이송되었다.¹⁹⁾

1948년 하반기 제주도로부터 이관된 4·3 관련 피고인은 총 131명(74건)이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1948년 10월 1일부터 1948년 12월 29일 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속행되었다. 일자별로 공판 상황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10월 1일 : 12건, 18명 사실 심리, 구형
- 10월 8일 : 8명 구형
- 10월 13일 : 21명 판결 언도
- 10월 14~15일 : 17명 구형
- 10월 23일 공판에서 판결 언도할 예정이었으나, 여수·순천사건으로 무기 연기
- 11월 26일 : 22명 구형
- 11월 30일 : 22명 판결 언도
- 12월 7일 : 36명 구형
- 12월 8일 : 12명 구형
- 12월 16일 : 6명 판결 언도
- 12월 17일 : 13명 판결 언도
- 12월 21일 : 9명 판결 언도
- 12월 29일 : 17명 판결 언도

이들 피고 총 131명(74건)에 대한 판결 내용은 사형 1명, 무기징역 5명, 징역 8개월~15년 82명, 집행유예 8명, 무죄 19명 등이다. 1948년 11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제주지역에는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군법회의 외에 민간재판은 실시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

18) 『東光新聞』, 1948년 9월 8일.

19) 『國際新聞』, 1948년 9월 11일.

원에서 민간재판을 계속한 것은 계엄 선포 전의 행위로 인해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있던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광주지방법원 4·3 판결문에서 1948년 10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재판을 치른 75명의 인적사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3〉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수록 수형인명부(1948.9~1948.12)

번호	성명	주거지	직업	나이	형량	판결연월일	비고
1	양규석(梁圭錫)	안덕			징역10년		광주형무소
2	현행주(玄行珠)	서귀 서흥	농업	24	징역10월	19480624	목포형무소
3	김상성(金尙聲)	전남 구례	농업	26	징역6월	19480807	
4	강태보(姜泰保)	제주 삼도		24	공소기각	19480919	
5	이용태(李用太)	구좌 송당		22	공소기각	19480929	
6	김희경(金僖慶)	제주 삼도	무직	20	공소기각	19480929	
7	김용효(金龍孝)	남원 태흥	농업	26	징역1년	19481005	
8	김택흥(金澤興)	남원 태흥	농업	33	징역1년	19481005	
9	김치옥(金致玉)	조천 함덕	농업	33	무죄	19481013	
10	김영필(金英弼)	조천 함덕	농업	20	징역1년/집유3년	19481013	
11	한진섭(韓辰燮)	조천 함덕	농업	24	징역1년/집유3년	19481013	
12	김상호(金尙好)	애월 납읍	농업	31	무죄	19481013	
13	강한진(康漢振)	조천 함덕	선원	26	징역3년	19481013	
14	임수혁(任守赫)	조천 함덕	농업	28	징역2년	19481013	
15	김태원(金台元)	조천 함덕	선원	34	징역3년	19481013	
16	현군명(玄君命)	제주 오라	농업	20	무죄	19481013	
17	강상수	안덕 감산	전교사	23	무죄	19481013	
18	강창호(姜昌浩)	애월 상귀	농업	26	무죄	19481013	
19	강달호(姜達浩)	애월 상귀	농업	26	무죄	19481013	
20	강달진(姜達珍)	애월 상귀	농업	28	무죄	19481013	
21	이근병(李根柄)	애월 상귀	농업	21	무죄	19481013	

번호	성명	주거지	직업	나이	형량	판결연월일	비고
22	강형만(姜亨萬)	애월 상귀	농업	25	무죄	19481013	
23	김대효(金大孝)	대정 영락	농업	20	무죄	19481013	
24	이정백(李正白)	제주 도평	목공업	28	징역2년	19481013	
25	고완순(高琬順)	대정 무릉	농업	30	징역3년	19481013	
26	고대진(高大珍)	제주 일도	농업	20	징역2년/집유5년	19481013	
27	임정길(任正吉)	조천 신흥	농업	31	징역1년/집유3년	19481013	
28	김건만	제주 내도	농업	19	무죄	19481023	
29	이달지	제주 내도	목공	34	무죄	19481023	
30	고영수	제주 내도	농업	26	징역5년	19481023	
31	문창호	제주 내도	농업	38	무죄	19481023	
32	문창영	제주 외도	농업	25	징역5년	19481023	
33	홍경문	제주 내도	농업	27	징역1년	19481023	
34	한봉준	중문	농업	22	무죄	19481130	광주형무소
35	문두복	중문 도순	농업	21	무죄	19481130	
36	고두행	중문 석달	농업	26	징역8년	19481130	
37	김봉수	중문 중문	제탄업	38	징역10년	19481130	
38	정동일	중문 중문	농업	22	징역15년	19481130	대구형무소
39	김구백(金九伯)	구좌 동김녕	농업	35	무죄	19481209	
40	양옥현(梁玉鉉)	제주 도련	농업	22	징역3년	19481209	
41	김행주(金幸柱)	제주 도련	농업	26	징역3년	19481209	
42	양석구(梁錫龜)	제주 도련	농업	26	징역3년	19481209	광주형무소
43	김희경(金僖慶)	제주 삼도	중학생	21	단기3년장기5년	19481214	
44	문달천(文達千)	한림 청수	농업	17	단기5년장기8년	19481214	인천형무소
45	이원택(李元宅)	제주 삼양	농업	21	공소기각	19481214	
46	한용두(韓應斗)	구좌 송당		32	공소기각	19481215	
47	고진옥(高鎭玉)	제주 삼양	전직 경찰	23	징역8월	19481217	
48	강군호	안덕 창천	농업	22	징역3년	19481217	
49	양경칠	한림 명월	농업	25	징역10년	19481217	
50	임윤빈(任允彬)	조천 함덕	농업	18	단기3년장기5년	19481217	인천형무소
51	김영욱(金永旭)	조천 함덕	선원	36	무죄	19481217	
52	권영자(權永子)	제주 삼양	어업	19	단기2년장기3년	19481217	광주형무소

번호	성명	주거지	직업	나이	형량	판결연월일	비고
53	이계문(李桂文)	중문 중문	농업	18	단기2년장기3년	19481217	
54	한진화(韓震和)	성산 고성	농업	23	징역1년6월	19481217	
55	고우삼(高友三)	남원 한남	농업	29	징역1년6월	19481217	
56	장임생(張壬生)	대정 보성	농업	37	징역3년	19481217	광주형무소
57	김영수(金英洙)	제주 삼도	무직	17	징역1년/집유5년	19481217	
58	문성언(文聖彦)	안덕 동광		26	징역7년	19481221	광주형무소
59	문성보(文聖寶)	안덕 동광	농업	30	징역7년	19481221	광주형무소
60	강문보(姜文輔)	중문 하원	농업	30	징역8년	19481221	
61	원계정(元啓正)	중문 하원	농업	22	징역7년	19481221	광주형무소
62	김희두(金熙斗)	중문 하원	농업	20	단기5년장기8년	19481221	광주형무소
63	기원택(奇元澤)	대정 인성	농업	22	징역5년	19481221	광주형무소
64	이원택(李元宅)	제주 삼양	농업	21	징역3년	19481221	
65	홍중화(洪重化)	애원 하귀	생도	16	징역2년/집유5년	19481221	
66	김창희(金昌熙)	애원 하귀	생도	17	징역2년/집유5년	19481221	
67	고상부(高常富)	애원 하귀	생도	17	징역2년/집유5년	19481221	
68	김복만(金福萬)	중문 하예	농업	22	공소기각	19481222	
69	한응두(韓應斗)	구좌 송당	농업	32	징역7년	19481223	
70	김갑순	조천 북촌	농업	20	단기4년장기7년	19481223	
71	고영찬(高永贊)	한림 저지	농업	18	단기5년장기8년	19481223	인천형무소
72	오용주(吳勇周)	중문 상예	농업	27	공소기각	19481223	
73	양대회(梁大熙)	남원 한남	무직	22	징역10년	19481223	
74	김백수(金白洙)	제주 삼양	농업	24	금고3년	19481223	
75	오태문(吳泰文)	제주 삼양	농업	22	금고3년	19481223	광주형무소
76	고완배(高完培)	제주 삼양	농업	21	징역3년	19481223	광주형무소
77	변학민(邊鶴敏)	서귀 서귀	천9연 대원	20	면소	19481224	
78	송상옥(宋祥玉)	제주 건입	무직	26	징역5년	19481224	광주형무소
79	강태홍	애원 금덕	농업	25	징역6년	19481229	
80	이성우	애원 상귀	농업	22	징역10년	19481229	
81	현상순	제주 오등	농업	28	징역10년	19481229	대구형무소
82	정동화	제주 오등	농업	33	징역10년	19481229	
83	김종규	제주 오등	농업	22	징역15년	19481229	

1949년에 접어들어서도 4·3 관련자들의 광주지방법원 재판은 단발적으로 지속되었다. 1950년에는 1~2월에 집중적으로 90여 명이 재판을 받았음이 아래 판결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다. 앞으로 이들의 행방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표 4)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수록 수형인명부(1949.3~1950.3)

번호	성명	주거지	직업	나이	형량	판결연월일	비고
1	김상준(金相俊)	제주 용담	전순경	26	징역6월/집유2년	19490317	
2	김시화(金時和)	구좌 세화	상업	52	징역10월/집유2년	19490317	
3	이상협	전남 광주	학생	20	징역1년/집유3년	19490602	
4	안영훈(安寧勳)	조천 조천	한지의사	35	징역1년/집유3년	19490602	제주지법
5	고공립	제주 용담	무직	58	징역4월	19490624	
6	김동순	제주 삼도	공업	29		19490805	
7	양윤(梁乙)	서울 중구	전검사	35	무죄	19491031	
8	이용태(李龍泰)	조천 조천	수도공	27	징역3년	19491224	
9	좌금옥	제주 이도	무직	33	징역2년/집유5년	19491227	
10	박성택	제주 용담	농업	21	징역2년	1950	
11	양경화	제주 아라	농업	27	징역2년	1950	
12	김기훈	제주 화북	농업	33	징역5년	1950	
13	김원선	한림 용포		53	공소기각	19500119	광주형무소
14	양천종	제주 연동		55	공소기각	19500119	광주형무소
15	현창식	제주 노형	농업	20	단기3년장기5년	19500125	
16	이경환	대정 하모	학생	19	단기5년장기7년	19500125	
17	이근효	제주 용담	농업	22	징역5년	19500125	
18	변병춘	한림 용포	농업	35	징역2년	19500125	
19	양석보	성산 고성	농업	38	징역2년	19500125	
20	김용숙	제주 용담	농업	24	징역2년	19500125	
21	홍익현	애월 어도	목공업	29	징역7년	19500125	

번호	성명	주거지	직업	나이	형량	판결연월일	비고
22	이근효(李根孝)	제주 용담	농업	22	징역5년	19500125	
23	김부생	애월 하귀		19	공소기각	19500126	광주형무소
24	김두윤	남원 의귀		39	공소기각	19500126	
25	서강영	제주 연동	농업	27	징역10년	19500127	
26	고성아	한림 명월	농업	24	징역1년	19500127	
27	고성희	한림 명월	농업	27	징역1년	19500127	
28	김병두	한림 협재	농업	29	징역1년	19500127	
29	강재반	제주 삼도	농업	29	징역3년	19500127	
30	오원보	성산 수산		24	공소기각	19500127	광주형무소
31	김지길	한림 명월	농업	24	징역3년	19500127	
32	변창하	애월 장전	농업	19	단기3년장기5년	19500127	
33	강재반(姜載礪)	제주 삼도	농업	29	징역3년	19500127	
34	김지길(金之吉)	한림 고림	농업	24	징역3년	19500127	
35	강우승	제주 함명		40	공소기각	19500201	광주형무소
36	고택수	제주 도련	농업	21	단기3년장기4년	19500203	
37	김두희	성산 난산	농업	22	징역2년	19500203	
38	김신칠	성산 난산	농업	19	징역4년	19500203	
39	정창종	성산 난산	농업	29	징역4년	19500203	광주형무소
40	김성삼	성산 난산	농업	23	징역4년	19500203	
41	오문선	성산 난산	농업	31	징역9년	19500203	광주형무소
42	김경림	성산 난산	농업	22	징역7년	19500203	광주형무소
43	김진삼	성산 난산	농업	22	징역7년	19500203	광주형무소
44	김병주	성산 난산	농업	28	징역7년	19500203	
45	고춘방	애월 소길	농업	19	단기3년장기4년	19500203	
46	김영주	성산 난산	농업	20	단기3년단기4년	19500203	
47	김지담	성산 난산	농업	19	단기3년단기4년	19500203	광주형무소
48	문창석	제주 노형	농업	27	징역2년	19500203	
49	진태숙	애월 소길	농업	22	징역3년	19500203	
50	김권시	제주 도련	농업	25	징역5년	19500203	
51	김문휴	성산 난산	농업	27	징역2년6월	19500203	

번호	성명	주거지	직업	나이	형량	판결연월일	비고
52	문달숙	제주 도두	어업	24	징역3년	19500203	
53	이병선	제주 삼도	농업	38	징역2년6월	19500203	
54	김상주	제주 함명	농업	30	징역5년	19500203	
55	김명식	제주 함명	농업	22	징역5년	19500203	
56	김인식	제주 함명	농업	27	징역5년	19500203	
57	홍경만	한림 상명	농업	36	징역3년	19500203	
58	양두규	제주 노형	학생	23	징역5년	19500203	
59	김최준	조천 합덕	농업	23	징역3년	19500203	
60	강평석	제주 화북	농업	34	징역2년	19500221	
61	현동진	제주 화북	농업	28	징역2년	19500221	
62	고태화	한림 금릉	농업	37	징역3년	19500221	
63	김승림	제주 이호	농업	32	징역3년	19500221	광주형무소
64	고윤선	제주 함명	농업	23	징역2년	19500221	
65	홍종봉	제주 연동	목공	27	징역2년	19500221	
66	강관주	안덕 동광	농업	29	징역3년	19500221	
67	강병주	안덕 동광	농업	26	징역4년	19500221	
68	박정생	한림 명월	농업	34	징역2년	19500221	
69	문태옥	한림 명월	농업	44	무죄	19500221	
70	고태옥	한림 명월	농업	37	무죄	19500221	
71	고중옥	제주 용담	전순경	29	징역2년	19500221	
72	강병철	한림 명월	농업	26	징역2년	19500221	
73	김승교	제주 봉개	농업	29	징역3년	19500221	
74	강균백	표선 성읍	농업	31	징역1년	19500221	
75	강병순	애월 어도	농업	27	징역1년6월	19500221	
76	양원종	한림 명월	농업	28	징역5년	19500224	
77	김순춘	표선 표선	농업	26	무죄	19500228	
78	김영순	구좌 행원	농업	20	징역2년	19500228	
79	한상룡	성산 수산	농업	23	징역2년	19500228	
80	고석현	제주 연동	농업	23	징역4년	19500228	
81	김지원	표선 가시	농업	23	징역2년6월	19500228	

번호	성명	주거지	직업	나이	형량	판결연월일	비고
82	김희탁	제주 이호	농업	21	단기2년장기3년	19500228	
83	신군홍	남원 의귀	농업	43	징역2년/집유3년	19500228	
84	김기환	남원 의귀	농업	32	징역2년/집유3년	19500228	
85	강원규	남원 의귀	농업	33	징역2년/집유3년	19500228	
86	고석부	애월 광령	농업	32	징역3년	19500228	
87	강홍표	제주 함명	농업	30	징역3년	19500228	광주형무소
88	김행수	성산 난산	농업	24	징역4년	19500228	
89	현성길	제주 노형	농업	28	징역5년	19500228	
90	강위옥	제주 월평	농업	38	징역1년	19500228	
91	김충유	제주 월평	농업	24	징역5년	19500228	
92	양계운(梁桂雲)	애월 고성	농업	26	징역5년	19500228	
93	고윤섭(高潤燮)	제주 함명	농업	24	징역7년	19500228	대구형무소
94	김신립	제주 이호	농업	32	징역2년	19500303	
95	이달희	제주 오라	농업	30	징역2년	19500307	
96	김용빈	제주 해안	학생	23	징역7년	19500307	
97	현행수	서귀 서흥	농업	26	무죄	19500307	
98	권기인	제주 화북	어업	35	징역2년	19500307	

4·3 관련 광주지방법원의 재판을 대별해보면 징역 2년 이상의 장기 수형인은 1948년 판결에서 80여 명, 1949년 이후 1950년 3월까지 판결에서 70여 명 등 150명을 상회한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려한다면, 1950년 6·25 발발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인원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전쟁을 거치는 가운데 행방불명됨으로써 형무소 재소 중 희생자가 되었다.

‘4·3위원회’에 신고한 희생자 가운데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사

망하거나 전쟁 직후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신고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① 타 형무소로 이송된 경우

○ 강군오

4·3당시 폭도로 오인 받고 경찰에 연행됨.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생활하다가 1950년 5월 24일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어 사망함.

② 형무소 복역 중 옥사한 사례

○ 문성보

1948년 9월 12일 안덕지서 순경들이 동생 성언과 함께 연행해갔고,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되어 광주형무소로 보내짐. 같이 수감된 동생으로부터 1950년 5월 13일 사망했다는 연락받고 부친이 가서 확인함.

○ 김병언

난산리 인근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토벌대에게 잡혀 광주형무소에 송치됨. 1949년 2월 20일 사망 소식을 친족에게 알려 알게 됨.

○ 정창중

마을 인근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군에 의해 잡혀 광주형무소에 있었음. 병환이 위독하니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 후 형무소에서 사망함.

○ 김승림

1949년 2월 경찰에게 연행됨. 광주형무소로 이송됨. 1950년 2월 15일 광주형무소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음.

○ 기원택

1948년 5월경 군인과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간 후 행불됨. 1949년 6월경 광주형무소 관보편지에 의해 1949년 6월 11일 사망통보 받음.

③ 전쟁 후 수감 중 행방불명된 경우

○ 송재현

1948년경 경찰에 연행됨. 인천 혹은 광주형무소에 수감했다는 소문 들음. 후에 사망통지서 받음.

○ 고문중

1949년 4월 경찰에게 연행. 마포형무소 수감. 그 후 광주형무소로 이감됨. 1950년 음 5월 19일 불명의 장소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친척의 연락이 있었음.

○ 김기규

1948년 음력 11월 12일 경찰에 연행됨. 서울구치소로 보내졌고 후에 광주형무소에 있다는 편지를 받았으나 한국전쟁 후 소식 두절됨. 품문에 1950년 형무소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 죽였다는 말을 들음

○ 문성연

1948년 9월 13일 순경에게 연행됨. 그 후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됨. 광주형무소로 이감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행불됨.

○ 오문선

1949년 2월경 산에서 숨어 지내다 토벌대에게 잡혀 광주형무소로 보내짐. 한국전쟁 후인 1950년 6월 28일경 형무소 전원을 사형시켰다고 들었음.

○ 오덕근

1947년 3월경 일본에 있는 누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성산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 경찰에게 체포됨. 광주교도소에 수감됨. 편지 왕래하다 한국전쟁 이후 소식이 두절됨.

○ 한봉준

1948년 음력 5월 5일 경비대에게 연행됨. 1948년 8월 1일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편지를 받고 그 후 행불됨.

○ 김지담

1950년 4월경 성산포경찰서에서 무장대로 오인해 연행됨.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편지가 한번 음. 한국전쟁 후 행불됨.

○ 김진삼

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9년 봄 토벌대에게 잡혀 그 후 행불됨. 한국전쟁 전에 광주형무소에 있다는 엽서가 온 후 행불됨.

○ 홍연한

1948년 9월 10일 밭에서 일하던 중 토벌대에게 잡혀 광주형무소로 이송됨. 연락이 와서 모친이 1949년 4월 15일 면회를 다녀온 후 연락이 두절됨.

○ 강홍표

산에서 숨어 지내다 지수를 했는데 일주일 뒤 풀려남. 그 후 1949년 7월경 경찰에게 잡혀가 광주형무소로 보내짐. 편지도 두 번 왔었음. 그 후 행불됨.

○ 김경홍

1949년 4월 10일 경찰에게 끌려가 광주형무소에서 편지가 두 차례 왔었음. 한국전쟁 후 소식이 끊김.

○ 장성윤

무장대에게 식량을 주었다는 모략으로 경찰에게 연행됨. 광주형무소에 수감됨. 한국전쟁 후 행불됨.

○ 김창규

1948년 음력 12월 15일 마을 소개 때 산으로 피신했다가 자진 하산함. 동척회사에 수용되었다가 광주형무소로 수감됨. 3~4회 편지를 받았고 한국전쟁 후 행불됨.

○ 장임생

1948년 지사에서 연락받고 나간 후 행불됨. 1950년 6월경 광주형무소에서 엽서가 온 후 소식이 없음.

즉, 일부 타 형무소 이송된 경우나 광주형무소 내부에서 옥사한 재소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전쟁 발발 직후 행방불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재판 수형자들은 대부분 목포·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타 형무소로 이송된 예가 많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이후에도 두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규석과 고윤섭은 광주형무소에서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이들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4·3 관련 미결수들 가운데 광주형무소·경찰서 유치장에서 재판을 대기하고 있다가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판기록을 통해 광주형무소 및 제주경찰서에서 사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두윤(49.1.10 제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으로 공소기각)

양천중(광주형무소 재감 중 사망으로 50.1.19 공소기각)

김원선(위와 같음)

강우송(50.1.9 광주형무소에서 사망)

김부생(50.1.10 광주형무소에서 사망)

오원보(50.1.22 광주형무소에서 사망)

한국전쟁 발발 당시 광주형무소에는 4·3 관련자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소위 좌익사범들이 상당히 많이 수감되어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헌병들이 형무소에 몰려와서 재소자들을 트럭에 싣고 산으로 끌고 가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일렬로 세운 채 총살하였다.²⁰⁾ 전쟁 발발 당시 광주형무소 근무자들이나 20연대 헌병대원 등은 여순사건 관련자 등 형무소에 수감 중인 사상범들을 트럭에 싣어 나가서 총살했음을 진술했다.²¹⁾ 전쟁 발발 때 광주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7월 23일 인민군이 침입한 뒤 출옥한 정기순(鄭基順)의 진술에 의하면, 1950년 7월 21일 자정 즈음 헌병이 같이 수감되어 있던 사촌 정기순(鄭基淳) 등을 호출하여 트럭 2~3대에 싣고 갔는데, 그 모친이 사건 발생 2~3일 후 광주시 인근 야산에서 집단으로 죽임을 당한 시신 속에서 희생자를 수습하였다는 진술도 있다.²²⁾

2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5.25),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1, 진실규명결정서』.

21) 한국전쟁 발발 당시 광주형무소 근무자와 20연대 헌병대 5중대 순찰계장의 진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5.25),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서』).

22) 정기순의 진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5.25),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서』).

이때 나간 사람들은 광주시 북구 동림동 불갱이고개(산동교 인근), 담양 인근 야산, 지산동 골짜기, 형무소 인근 농장 등지에서 사살되었다는 진술이 있다.²³⁾ 북한 인민군 측이 작성한 종군 기사에 따르면, 총살 장소는 광주시 광산군 극락면 불갱이고개를 비롯하여 광주 교외의 광산군 지산면 장고봉, 석고면 도등고개, 대천면 한뫼재, 광주시 학동3구 밀양동 고개 등 5군데로 추정된다.²⁴⁾

광주형무소 수감자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광주·전주·목포형무소에 재감중인 죄수 및 보도연맹 관계자 기타 피검자는 전국 관계장 경찰국장 형무소장 검사장과 타협 직결 처분하고 절도 기타 잡범은 기출옥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할 사 각 경찰에 유치중인 피검자도 전기에 의거하여 처치하라.²⁵⁾

이 명령서는 헌병사령관 송요찬이 광주헌병대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호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4·3 관련자들에 대한 사살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23일 석방되어 나온 강위옥은 3년 이상 수형자들은 다 죽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광주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남원면 의귀리 출신 현아무개는 수장되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도 기억하였다.²⁶⁾

23) 광주형무소 간수, 20연대본부 수송병, 전남도경 통신과 직원 등의 진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서』, 2010.5.25).

24) 호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실태에 대해서는 신경득(2002),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살림터, 165~186쪽을 참고하였다.

25) 『朝鮮人民報』, 1950년 9월 5일.

V. 맺음말

이 글은 지금까지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행형자료에 관한 조사 결과물이다. 행형자료는 판결문 등 재판 관련 자료와 교도소의 수형자료 등 각 검찰기관과 교정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말한다. 특히 해방직후 일어났던 대표적인 대중투쟁 사례인 9월 총파업, 10월 사건, 3·1기념식 사건, 2·7사건, 4·3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 소장 1,670여 건의 4·3 관련 행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초적으로 정리한 성과물이다. 우선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목포형무소에 이어 이번에는 서대문·마포·광주형무소 복역자의 실상을 파악하여 보았다. 서대문·마포형무소에 수감된 4·3관련 재소자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탈옥수명부』를 검토한 결과, 전주형무소의 여성 수형인들이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 언도된 4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광주형무소 복역자의 실상도 광주지법 재판에 회부된 4·3관련자 15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행형자료를 중심으로 형무소 수형인 행방불명인의 실태를 파악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점은 전체적으로 개인 연구자의 진상규명에 한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새로이 확보한 행형자료를 근거로 일부 희생자

26) 강위옥(姜渭玉, 86세, 제주시 월평동, 당시 좌익단체원, 2001.12.15. 채록)의 진술.

를 찾았다 치더라도 더 많은 수의 미확인 행불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현실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는 점이다.

확인된 명단이 있을지라도 이들 유가족이 시신을 수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정확한 탈옥희생자·피살자 명부의 확인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희생자의 시신 처리, 무덤 및 묘역 조성 여부, 묘적부 관리 여부, 암매장지 확인 등 현지 진상규명의 또 다른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암매장지 유해 발굴을 위해서도 이러한 선행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향후 전국 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총살된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충실한 행형자료의 확보와 정리·분석의 작업을 거쳐서 역사학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의 기억을 꼼꼼하게 재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유해 발굴 또한 주어진 상황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형무소 인근 암매장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행불자의 경우 전국적인 행불자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행불자의 행방 추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 새롭게 확인한 행불자 인명 목록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연결망을 더욱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과제를 더 생산했다는 점에서 4·3 연구의 현실적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무쪼록 이 글이 향후 다른 형무소 재소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행방불명자 전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4·3행형자

료의 본격적인 분석을 통한 4·3무장봉기의 지도부 및 참여자에 대한 분석, 당시 사회상에 대한 연구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해 두고자 한다. 4·3으로 인한 형무소 재소자 행방불명인 실태 조사는 한국현대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시론에 불과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부록 : 4·3 행정자료 목록〉

□ 재판관련 자료(판결문 및 각종 명부)

○ 제주지검 관련 자료

1) 판결문

- 1947년 판결원본(M/F No. 22674, 문서 No. 6393) : 107명분
- 1948년 판결원본(M/F No. 22674, 문서 No. 6394) : 154명분
- 1946년 약식판결원본(M/F No. 22683, 문서 No. 6414)
- 1947년 약식판결원본(M/F No. 22682, 문서 No. 6412)
- 1949년 판결원본(M/F No. 22675, 문서 No. 6396) : 13명분
- 1948년 판결원본(M/F No. 22676, 문서 No. 6397) : 22명분
- 1949년 판결원본(M/F No. 22676, 문서 No. 6398) : 28명분
- 1949년 판결원본(M/F No. 22676, 문서 No. 6399) : 20명분
- 1950년 판결원본(M/F No. 22677, 문서 No. 6400) : 19명분
- 1950년 판결원본(M/F No. 22677, 문서 No. 6401) : 2명분
- 1951년 판결원본(M/F No. 22677, 문서 No. 6402) : 15명분
- 1951년 판결원본(M/F No. 22678, 문서 No. 6402) : 9명분
- 1954년 판결원본(M/F No. 22677, 문서 No. 6402) : 13명분
- 1952년 판결원본(M/F No. 22679, 문서 No. 6404) : 13명분
- 1956년 판결원본(M/F No. 22679, 문서 No. 6405) : 6명분
- 1953년 판결원본(M/F No. 22680, 문서 No. 6406) : 9명분
- 1955년 판결원본(M/F No. 22681, 문서 No. 6408) : 11명분
- 1957년 판결원본(M/F No. 22681, 문서 No. 6409) : 1명분
- 1959년 판결원본(M/F No. 22683, 문서 No. 6413) : 4명분

- 1948년 약식판결원본(M/F No. 22684, 문서 No. 6415)
- 1949년 약식판결원본(M/F No. 22684, 문서 No. 6416)
- 1950년 약식판결원본(M/F No. 22684, 문서 No. 6417)
- 1952년 약식판결원본(M/F No. 22684, 문서 No. 6418)

2) 대장(명부)

- 1947년 수형인명부(M/F No. 22704, 문서 No. 6504)
- 1947~49년 수형인명부(M/F No. 22704, 문서 No. 6505)
- 1950~53년 수형인명부(M/F No. 22704, 문서 No. 6506)
- 1946년 형사사건부(M/F No. 22691-22692, 문서 No. 6433-6435)
- 1947년 형사사건부(M/F No. 22692-22693, 문서 No. 6436-6438)
- 1948년 형사사건부(M/F No. 22693, 문서 No. 6439-6442)
- 1949년 형사사건부(M/F No. 22694, 문서 No. 6443-6446)
- 1950년 형사사건부(M/F No. 22694, 문서 No. 6447-6448)
- 1949년 집행원부(M/F No. 18096, 문서 No. 17425)
- 1947년 집행원부(M/F No. 18097, 문서 No. 17427)
- 1948년 집행원부(M/F No. 18097, 문서 No. 17430)
- 1949년 집행원부(M/F No. 18097, 문서 No. 17433)
- 1950~51년 집행원부(M/F No. 18098, 문서 No. 17435)
- 1952~53년 집행원부(M/F No. 18098, 문서 No. 17439)
- 1936~59년 공조사건부(M/F No. 22700, 문서 No. 6478)
- 1949~60년 형사신청사건부(M/F No. 22700, 문서 No. 6479)
- 1947년 피의자색인부(M/F No. 22700, 문서 No. 6483)
- 1948년 피의자색인부(M/F No. 22700, 문서 No. 6483)
- 1949년 피의자색인부(M/F No. 22700, 문서 No. 6483)
- 1950년 피의자색인부(M/F No. 22700, 문서 No. 6485)
- 1951년 피의자색인부(M/F No. 22700, 문서 No. 6486)
- 1948~49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M/F No. 22702, 문서 No. 6495)

- 1950~51년 사건기록보존부(M/F No. 22702, 문서 No. 6496)
- 1952~53년 사건기록보존부(M/F No. 22702, 문서 No. 6497)
- 1954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M/F No. 22703, 문서 No. 6498)
- 1955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M/F No. 22703, 문서 No. 6499)
- 1956~57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M/F No. 22703, 문서 No. 6500)
- 1958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M/F No. 22703, 문서 No. 6501)
- 1959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M/F No. 22703, 문서 No. 6502)
- 1948~49년 군법회의분 수형인명부(M/F No. 22703, 문서 No. 6503)
- 1931~48년 상소결과부(M/F No. 1996-1015, 문서 No. 77-6367)
- 1935~52년 형사신청사건부(M/F No. 1996-1015, 문서 No. 77-6368)
- 1944~47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M/F No. 1996-1017, 문서 No. 77-6383)
- 1942~47년 수형인명부(M/F No. 1996-1019, 문서 No. 77-6390)

○ 광주지검 관련 자료

1) 판결문

- 1948년 판결원본(M/F No. 13599, 문서 No. 5522) : 2명분
- 1948년 판결원본(M/F No. 13600, 문서 No. 5523) : 5명분
- 1948년 판결원본(M/F No. 13600, 문서 No. 5524) : 40명분
- 1949년 판결원본(M/F No. 13601, 문서 No. 5525) : 8명분
- 1949년 판결원본(M/F No. 13601, 문서 No. 5526) : 1명분
- 1949년 판결원본(M/F No. 13602, 문서 No. 5527) : 5명분

○ 대구고검 관련 자료

1) 판결문

- 1950년 판결원본(M/F No. 12980, 문서 No. 2979, 2980) : 8명분
- 1951년 판결원본(M/F No. 12980, 문서 No. 2982, 2983) : 3명분

□ 교도소 자료

- 1948년 서울구치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661, 문서 No. 8989)
- 1950년 서울구치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661, 문서 No. 8990)
- 1950년 서울구치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661, 문서 No. 8991)
- 1950~52년 서울구치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661, 문서 No. 8994)
- 1948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674, 문서 No. 9097)
- 1948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674, 문서 No. 9098)
- 1949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674, 문서 No. 9099)
- 1949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675, 문서 No. 9099)
- 1950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675, 문서 No. 9100)
- 1949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983, 문서 No. 9144, 9145)
- 1950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인명부(M/F No. 14983, 문서 No. 9146, 9147, 9148)
- 1950년 부산교도소 종결신분장보존부(M/F No. 14988, 문서 No. 9190)
- 1951년 부산교도소 종결신분장보존부(M/F No. 14988, 문서 No. 9191)
- 1948~54년 목포교도소 출소좌익수명부(목포교도소 소장자료)
- 1950~64년 목포교도소 형집행정지자명부(M/F No. 15261, 문서 No. 9544)
- 1950~59년 목포교도소 좌익수종결신분장보존부(M/F No. 15261, 문서 No. 9546)
- 1950~73년 목포교도소 묘적부(M/F No. 15261, 문서 No. 9547)
- 1929~56년 부산교도소 마산지소 묘적부(M/F No. 15264, 문서 No. 9571)
- 1951년 안동교도소 종결신분장보존부(M/F No. 15554, 문서 No.

11549)

- 1950년 부산교도소 만기력부(M/F No. 84-1441, 문서 No. 84-442)
- 1951년 부산교도소 만기력부(M/F No. 84-1441, 문서 No. 84-443)
- 1948~50년 부산교도소 교정통계(M/F No. 85-0422, 문서 No. 1473)
- 1949~50년 부산교도소 교정통계(M/F No. 85-0422, 문서 No. 1474)
- 1950~51년 부산교도소 교정통계(M/F No. 85-0422, 문서 No. 1475)
- 1950년 마산교도소 사망자대장(M/F No. 85-0496, 문서 No. 84-1681)
- 1951년 마산교도소 사망자대장(M/F No. 85-0496, 문서 No. 84-1682)
- 1952년 마산교도소 사망자대장(M/F No. 85-0496, 문서 No. 84-1683)
- 1946~51년 대구교도소 형집행정지인명부(M/F No. 85-0584, 문서 No. 84-1843)
- 1950~70년 안동교도소 출소좌익수명단(M/F No. 85-0614, 문서 No. 84-1936)
- 1950~51년 안동교도소 종결신분장보존부(M/F No. 85-0614-1, 문서 No. 84-1964)
- 1945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일표(M/F No. 85-3022, 문서 No. 964)
- 1946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일표(M/F No. 85-3022, 문서 No. 965)
- 1947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일표(M/F No. 85-3022, 문서 No. 966)
- 1949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일표(M/F No. 85-3022, 문서 No. 967)
- 1950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일표(M/F No. 85-3022, 문서 No. 968)

- 1951년 부산교도소 묘적및합장부(M/F No. 85-0430, 문서 No. 84-1511)
- 1951년 부산교도소 형집행정지자명부(M/F No. 85-0431, 문서 No. 84-1513)
- 1951~53년 부산교도소 형집행정지자명부(M/F No. 85-0431, 문서 No. 84-1514)
- 1949~51년 안양교도소 수용자신분카드(No. BA0201989, 0202004~0202023)
- 1951~57년 마산교도소 수용자신분장(No. BA0398878~0556086)
- 6·25 당시 탈옥수명부(서울형무소·마포형무소·목포형무소), 법무부 검찰과 작성

참고문헌

- 제주4·3연구소(1989), 『이제사 말함수다』 I, 도서출판 한울.
- 서중석(1999),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 시귀선(2000),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해방 이후 행형기록의 내용과 활용방안」, 『역사연구』 7.
- 박찬식(2001),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 「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창간호.
- 신경득(2002), 『조선 중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살림터.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 박찬식(2007), 「제주4·3사건 관련 목포형무소 재소자 연구 -행방불명자 규명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3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9.2.2),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9.8.18),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1, 진실규명결정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5.25),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6.29),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Abstract

The execution materials related with Jeju 4·3 Incident
and prison inmates

- Focusing on prisons of Seodaemun, Mapo and Kwangju -

Park, Chan-Sik*

This article studied the modern history after Korea's liberation through the execution materials that was not addressed until now rarely been investigated. The execution materials are records of the wide selection made from prosecution and the jail. Specially, these data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s of the popular struggles which happene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re very important. However, these data were not applied until now almost

This writing analyzed execution materials contents which relate with 4·3 events. First of all, I investigated the jail lost people who are not described in the report of the government. I investigated lost people of Mokpo jail from former research, continued and to this time researched the lost people of Seodaemun, Mapo and Kwangju jail. About mobile of the jail and prison break voluntary whereabouts etc. the facts which are various were verified.

In future the investigation about the jail lost people were not confirmed in this time is necessary. Also with judgment paper data, the research of concrete facts about popular struggles, at that time aspect of society, and analysis about combative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layer are expected.

* Fellow, Institute of Peace, Jeju University

Key Words

Jeju 4·3 Incident, Fact-finding report of Jeju 4·3 Incident, the execution materials, Roster of penal servitude person, Roster of prison break person, judgment paper, the lost people, Seodaemun jail, Mapo jail, Kwangju jail, the popular struggles.

교신 : 박찬식 제주대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제주시 아라1동 원신아파트 102-705
(E-mail : cheju4843@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1. 12. 20.

심사완료일 2012. 02. 01.

게재확정일 2012. 02. 13.